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11일)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대학생 전법’ 성공의 기틀 사부대중 원력으로 세운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대회’ 개최
11월11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서
원로 스님, 본사 주지, 이웃종단 등
범불교적 전법기금 마련 행사 추진
“대학생 전법 성패, 불교 미래 달려
전법 기금 마련에 사부대중 동참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최대 화두인 ‘대학생 전법’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사부대중 원력 결집이 이뤄진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이하 ‘사부대중 전법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과 상월결사 총도감이자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담화 스님이 참석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4주년을 맞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리는 ‘사부대중 전법대회’는 말 그대로 대학생 전법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하고 교구 · 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며 인력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안정적인 전법 불사를 위해 안정적 재원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2000~3000만원 가량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가진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사비를 출연해 활동비를 보조하거나 어렵게 보시를 끌어오는 형태였다. 그러다보니 신실한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부재할 경우 불교 동아리의 명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대학생 불교 동아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은 앞으로 대학생 전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2022년 12월 상월결사 창립기념식에서 회주 자승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월결사의 설립 취지는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이다”면서 “심각한 침체에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상월결사의 수행과 신행문화의 원력을 대학생전법에 집중하여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을 육성하기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00여 전국대학 중에서 58개의 대학만이 불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활동도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돈관 스님은 “이번 ‘사부대중 전법대회’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대학생 전법에 튼실한 양분이 되어줄 것”이라며 “금번 전법대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법위원회에 위촉된 전국사찰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지도법사 전법위원과 지도교수님들이 대학생전법에 필요한 근본적인 재원으로서 한국불교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튼실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부대중 전법대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원로스님들을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교구본사 주지스님, 전법위원 등 사부대중 43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대학생 전법에 동참하기로 했던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 태고종 · 총지종 · 대각종 등 이웃종단 지도자들도 참여해 대학생 전법이 범불교적 불사임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법대회는 대학생 전법의 중장기 계획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상월결사는 ‘1교구-1대학 불교 동아리 설립’을 기조로 연간 최대 30곳의 불교 동아리를 창립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100곳의 대학에 불교 동아리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가을 전국 불자 대학생 축제 한마당을 열고 주기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 후 호남대, 영산대, 경일대 등에서 불교 동아리가 설립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희망적”이라며 “제25교구본사 주지에 취임하면서 대학생 전법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말사스님들과 전법 불사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 전법에 대한 원력을 전국의 모든 사부대중이 갖고, 전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담화 스님은 “자승 스님께서는 ‘대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는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고 또 완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학생 전법 성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국불교 미래를 좌우하는 화두이기 때문”이라며 “일선 사찰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학생 불교를 살리는 일이 한국불교를 살리는 일임을 인지하고 대학생 전법 불사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부대중 전법대회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영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 VIP 시사회도 열린다. KBS가 제작한 인도순례 다큐에 불교방송과 BTN불교TV의 영상을 함께 재편집한 작품이다. 러닝타임은 1시간 17분으로 젊은 세대가 상월결사 정신과 불교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11월 16일 개봉해 전국 100여 개 상영관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상월청년합창단, 불교문화대전 문을 열다

불교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불교문화대전’이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18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2023 불교문화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불교문화대전’은 10월에 많이 열리는 전국 각지의 불교문화행사를 문화주간에 집중해 불자와 국민들이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장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10월 31일까지 전국 사찰, 단체 등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진다. 사진은 상월청년합창단원들이 불교문화대전 개막식에서 축하공연을 펼치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이-팔 전쟁 종식, 평화 기원합니다”

종지협 “살상 · 전쟁에서 승자 없다”
더프라미스, 긴급 지원 모금 전개
세계종교지도자총회서 공동성명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는 10월 13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이 보이지 않는 무력과 폭력으로 희생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호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살상이 전제된 전쟁에서의 승자는 없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이어 “한국 7대 종단 대표들은 전쟁이 격화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폭격과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며 “양측 지도자와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전쟁 중단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종지협은 또 “모든 국가가 상호 협력해 세계평화를 위한 즉각적인 종전 협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무수한 인명피해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종지협은 “전쟁의 희생자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서로가 증오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원하고 온갖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0월 10~11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세계전통종교지도자총회 사무국 회의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사무국 회의에는 11개국 8개 종교 대표 30명이 참가해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환경, 식량, 빈곤, 국가 간 분쟁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종교인을 대표해 참석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민족의 종교적 관용과 환대의 전통에 따라 여러 다른 종교와 교파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며 “세계가 처한 문제와 위기를 명확히 바라보고 종교인의 기도와 지혜로 영적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는 지구촌 평화를 발원하며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을 실시한다. 이스라엘 재난심리전문 구호단체 이스라에이드(IsraAID)와 협력해 이스라엘 전쟁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구호와 심리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프라미스 이사장 묘장 스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호 활동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NGO 단체와 협력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모금은 온라인 모금(신한은행 100-035-864047, 예금주: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또는 후원하기 링크(https://bit.ly/45zeziP)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한편,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에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쏘며 기습 공격했다. 8일 이스라엘 또한 즉시 전쟁을 선포,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 현재 양측에는 4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망자의 60%가 재난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로 파악됐다.

윤호섭 · 김내영 기자

Korean Buddhist Studies at the Crossroads of Civilization, Bridging a New Future!

한국불교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창립 : 1973년 7월 7일)

문명전환기의 한국불교학
새로운 미래를 잇다

일 시 2023년 11월 3일(금) – 4일(토)
장 소 동국대학교

첫째날 11월 3일(금), 개회식 (장소 : 본관 중강당)
15:30 ~ 18:30
공로패/감사패 수여
한국불교학회 제3회 탄허학술상 수상식
학회 창립 50주년 축하 공연
기조강연 1. 이평래(충남대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의 반세기 회고, 그리고 나아갈 길”

둘째날 11월 4일(토), 창립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09:00 ~ 18:00 (장소 : 법학만해관 2층)
기조강연 2.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종교불학의 학문적 성격과 해석학적 과제”
초청강연 1. 모리야 토모에(守屋友江, 일본 남잔대)
초청강연 2. 린챈쿠어(林鎭國, 대만 정치대)
초청강연 3. 모로 시게키(師茂樹, 일본 하나조노대)
초청강연 4. 폴 해리슨(Paul Harrison, 미국 스탠포드대)
초청강연 5.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 일본 와세다대)

분과별 세션 제1분과 초기(부파)불교 / 제2분과 유식불교 / 제3분과 동아시아불교 / 제4분과 불교인식론 / 제5분과 인도철학 / 제6분과 불교와 마음철학 / 제7분과 불교와 문화예술 / 제8분과 현대사회 윤리와 계율 / 제9분과 한국불교(학)의 나아갈 방향
총 44명 발표

▣ 후원계좌 : 국민은행 297601-00-01579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주 소 | (04626) 서울시 중구 필동로 32 낙원빌딩 5층 (사)한국불교학회 / 전화: (02) 2263-1973 팩스: (02) 2263-1974 담당: 010-2474-7411

Since 1973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집행위원회

조계종 내년 예산 965억원…분담금 회복

일반회계 312억원 · 특별회계 653억원 편성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코로나19 시기 감면한 분담금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추진
일반 · 특별회계예산 모두 인상
'천년을세우다'에 42억원 편성

불기2568(202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약 96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면한 중앙 · 직할분담금을 감면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그동안 축소된 모든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12억1600만원, 특별회계 653억6848만원이다. 올해보다 일반회계는 10.21%, 특별회계는 23.04% 늘어났다.

일반회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20년 수준으로 회복한 중앙 및 직할분담금이다. 조계종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국사찰의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분담금을 10% 감면한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분담금 예산은 중앙 11.36%, 직할 6.74%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비 보조에 따른 조정으로 문화유산분담금이 올해 45억9000만원에서 66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무부는 내년 종단개혁 30주년 기념행사와 하반기 전국불교도 결집대회,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불교도 결집대회는 불교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신심과 원력을 확인하는 행사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실은 종단조직 분석연구, 전통사찰 입법관련 용역, 22대 총선 대비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여러 차례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예고한 데 맞춰 연구가 진행된다.

재무부는 여러 부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다. 세금과 공과금 등의 인상, 시설장비 유지 등이 반영됐다. 또 사찰환경진단 모니터링 지표 개발비를 비롯해 조직개편 이후 진행될 부서 이동 시설비도 포함됐다. 반면 문화부는 대규모의 불교미술 · 불교문화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내년에는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특별회계는 내년 사업이 마감되는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과 전법회관 건립, 2027년까지 계속되는 10.27법난 기념관 사업, 천년을세우다 특별회계 편성 등이 중심이다. 우선 양평 문화재 연구시설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천년을세우다는 특별회계 42억원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추진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뿐만 아니라 명상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보급과 시연 행사, 세계 선명상 대회 개최, 명상센터 장소 선정과 시설계획 정리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예산, 한국문화연수원 시설 개 · 보수 자부담 예산, 일반직 종무원 명예퇴직금 충당금 적립 등도 반영됐다. 예산안 심의 · 결의는 오는 11월 1일 개원하는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진행된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10월 19일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은 코로나로 축소된 종단의 모든 활동을 정상화하고자 그동안 감면한 분담금 규모를 2020년 수준으로 회복해 편성했다"며 "불교중흥의 토대를 닦는 각종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조계사 새 주지에 담화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10월 18일 임명장 수여



한국불교 1번지이자 조계종의 총본산을 상징하는 서울 조계사 새 주지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담화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담화 스님에게 조계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 · 실장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스님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등이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는 총무원 직영 사찰이고 조계종의 총본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 주지는 어떤 사찰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담화 스님은 종회를 비롯해 조계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담화 스님은 "원장스님 말씀을 잘 받들겠다. 총무원 부장스님을 잘 모시면서 신도님들과의 화합을 이뤄 기도성취 도량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담화 스님은 성오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하고 금강정사 · 김포 연운사 주지를 주지를 지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제16~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진각종조 정신 되살려 교화하자"

진각종, 회당대종사 열반 60주기 추념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10월 16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회당대종사 열반 60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하고 종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사진〉

추념불사에는 경정 총인을 비롯해 기로스승 혜정 정사, 수성 정사, 인의회 의원 덕일 정사, 통리원장 도진 정사, 현정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위덕대 총장 회성 정사를 비롯한 종립학교장, 서울교구 스승과 유가족, 총금강회장 정명각자를 비롯한 신교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추념사를 통해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 종조열반 60주기를 맞이했다.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종단 발전의 염원을 다진다"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발전시킬 불사는 포교와 교화의 확장이다. 종조정신을 새롭게 되살려 포교하고 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구청장 신혜 정사는 "회당대종사님의 무진서원에 귀명하며 종단의 실천이념인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이 땅에 뿌리내려 일체중생들이 심인진리에 제도되고 밀엄정토가 구현되기를 서원한다"고 강도발원 했다.

신중일 기자

사격 높인 공찰주지, 중창주 권리 주어질까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사찰법 개정안 논의 시작

2013년 삭제된 조항 되살리고
공찰 운영 동기부여 취지 담아
구체적 기준 마련해 상정키로

사격을 크게 일신한 공찰 주지의 중창주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주지스님들이 보다 굳은 원력으로 공찰을 운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설사암의 양성화를 막기 위해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 ·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는 10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찰법 개정안은 중창주의 권리를 규정한 제23조에 '쇠락하고 피폐한 공찰의 사격 및 역할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 라는 호를 신설했다. 중창주는 입적할 때까지 당해 사찰의 주지 추천권을 갖는다.

위원장 만당 스님은 개정안에 대해 "본사주지 선거에 의해 논공행상을 할 때 해당 공찰에 공로가 큰 스님들이 더 이상 주지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공찰 위상이 꺾이기도 한다"며 "공찰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의 공로를 인정해야 사설사암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찰법 개정안에 추가된 중창주 권리 부여 조건은 지난 2013년 3월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삭제된 자격조건과 같다. 조항 삭제 이후 10여 년만에 해당 자격을 다시 추가하자는 것. 삭제 당시에는 쇠락과 피폐, 격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중심의 조문이 문제로 제기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신설된 조문의 단어들이 법률용어로 적절치 않다"며 "이대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서 통용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만당 스님은 "세부적인 기준을 일일이 종법에 나열할 수 없어 종령으로 다루면 된다"고 했지만 비교적 개정이 쉬운 종령 대신 종법에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 스님(대흥사)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조문들은 명확하게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스님들은 사찰 규모나 재정 확대, 포교 성과, 대사회 역할 등 공찰의 사격 일신 공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결산기준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분류한 사찰등급이 거론되기도 했다. 낮은 등급의 사찰을 높은 등급까지 올릴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막기 위해 "중창주 권리 부여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스님들은 대다수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내년 3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시간을 두고 개정안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현행 중창주의 권리 심사는 교구본사 주지가 총무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호계원장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 '중창주심사위원회' 가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윤호섭 기자

석불사 · 연세한강병원, 승려복지 MOU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성화)는 10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마포 석불사 · 연세한강병원 승려복지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석불사 스님은 병원에서 접수와 진단, 입원, 치료, 간병, 퇴원 절차 등에 신속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스님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 역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은 승려복지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찰에서 연세한강병원을 적극 홍보, 더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려복지회는 석불사와 연세한강병원의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사찰과 전문병원의 승려복지 MOU 체결사업을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2024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단체 신청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재가불자들과 함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인증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공고일 ~ 2023년 11월 30일(목)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함)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 · 선무도 · 문화(영화 · 음악 · 미술)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⑤ 위 ①내지 ④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교육원장이 인증하는 전법교화활동
*** 우대사항 : 출가장려 활동**
※ 제외대상 : 법인, 사찰, 중앙종무기관의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 받는 단체
(포교 · 신도단체, 전법단 등 유관단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발성 사업 등

신청서류
가. 인증 신청서 나. 단체 현황
다. 정관 라. 회원명단 마. 전법교화활동 계획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접속,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승가결사체 검색(각종양식)

지원사항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게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 부여
(활동기준 : 연 2회 이상 회의,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충족 시)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 활동단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접수 및 문의
가. 우편접수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나. 이메일 접수 : thkim@buddhism.or.kr
다.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1

결과발표 2023년 12월 중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불기 2567(2023)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범 해

“입보다 손발, 실천으로 태고종 변화 이끌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 행동철학 중 하나가 ‘입보다 손발’ 입니다. 입으로는 탁상공론을 할 수 있지만, 손발은 탁상공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리 살아왔습니다. 실천으로 태고종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9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천으로 종단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지난 6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 동안 보인 첫 ‘실천’은 ‘대외 소통’이다. 상진 스님은 지방종무원을 순시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월에는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격려하고, 태고종이 보유자로 있는 인류무형유산 영산재를 시연해 박람회 유치를 기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와도 만나 지역 현안을 듣고 태고종의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청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고 오송 궁평 지하차도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대외적인 자비나눔 행보도 이어갔으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성명 · 모로코 강진 애도문 · 건군 75주년 축하메시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전 총무원장과는 차별화된 광폭 행보였다.

취임 100일 동안 이동한 주행거리만 3만㎞에 달할 정도로 상진 스님이 시간을 쪼개가며 동분서주한 이유는 명징하다. ‘대외 행보를 통한 종단 위상 강화를 위해서’ 다.

상진 스님은 “취임 100일 동안 대외 행보를 이어간 이유는 1차적으로는 종단 화합 때문”이라며 “그간 총무원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교구 방문을 통해 그 문턱을 낮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고종은 내면적으로 깊이가 있고 숨은 인재가 많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며 종도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수행자로서 위의를 보일 것을 이야기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협력을 약속한 것도 종단의 위상을 강화해 종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대외적 소통 행보를 보였다면, 상진 스님이 계획하는 두 번째 행보는 태고종의 잠재력을 대중에게 보이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적자종단 태고종은 어느 종단보다도 잠재력이 크다”고 자부하며 “태고종이 보유한 유 · 무형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9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실천으로 종단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취임 후 100일, 대외 행보에 중점
지역 교구, 지자체 등 만남 이어가
“종단 대외 위상 강화 위한 노력”

태고문화사업단(가칭) 설립 추진
종단 유무형 문화유산 활용 계획
교육원 신설해 교육 전문성 강화
청년회 재창립…전법 기능 확대

실제 태고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의 순천 선암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 100여 개의 전통사찰이 있는 것도 태고종의 주요 문화자산이다. 하지만 태고종은 다른 종단과 비교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진 스님은 ‘태고문화사업단(가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고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유산의 보전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시대에 맞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법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종단 도제 양성을 위한 변화도 꾀하고 있다. 상진 스님은 기존 총무원 교무부에서 주관해온 종도 교육 전반을 신설하는 교육원에 이관키로 했다. 종단 승려교육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지방종무원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승교화 종단을 표방하는 만큼 전법 · 포교 강화도 상진 스님의 주요한 종단 발전 복안이다. 우선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청년회 재창립을 추진한다. 조만간 새 청년회장을 임명하고 집행부를 구성해 전국 체제의 불교청년회로 발전시킨다는 게 스님의 계획이다. 또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참여해 대학생 전법도 동참키로 했다.

상진 스님은 자신의 행보가 종단 종무행정의 기틀을 만드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저 이후 종무행정을 책임질 총무원장이 종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종단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선도할 수 있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 대표 문헌 10종 세계에 알린다

조계종 문헌영역편찬위
교학 · 역사 · 예술 등
10월 27일, 봉정법회도

한국 전근대와 현대를 대표하는 불교문헌 10종이 영어로 번역돼 세계에 배포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진우, 편찬위)는 오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 대표문헌 10권 완간 기념 봉정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문화 세계화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사업은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불교의 사상과 문화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문으로 출간된 10종 서적은 40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선별된 한국불교 대표 전통 문헌 5권과 현대 문헌 5권이다. 불교 교학, 선학, 문학, 역사, 철학, 사상, 사회,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선정 문헌에는 신라 의상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제자 지통 스님이 정리한 책으로, 160항목의 문답이 담긴 〈화엄경 문답〉과 한국 선의 사상적 특징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 자료로 꼽히는 〈한국의 선사상〉, 문학성과 종교성이 조화를 이룬 불교문학의 백미 〈월인천강지곡〉, 한국 불교사를 빛낸 고승들의 전기를 모은 〈한국 고승전〉을 비롯해 조선 500년 동안 불교를 옹호한 논서 및 글을 한 권으로 묶은 〈조선 호불론〉이 포함됐다.

성철 스님의 법문을 엮은 〈선문정로〉, 법정 스님이 직접 50편의 글을 엄선해 모든 산문 선집 〈맑고 향기롭게〉, 불교의 선을 서양철학의 시각에서 분석한 〈선의 세계〉, 한국 불교학의 대표적 석학인 고익진씨가 한국 불교사상을 조망한 〈한국의 불교사상〉, 한국에서 조성된 불상의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한 〈한국의 불상〉도 영문판으로 발간됐다.

대표문헌 영역본은 봉정법회가 끝나는 대로 국내외 도서관 및 연구기관, 불교학계 저명 학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전자책과 PDF파일을 제작해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구글북스(Google Books)에서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앞서 2012년에 〈한국전통사상총서〉 13권을, 2017년에 〈근대 한국 불교 대표 문헌〉 10권을 영문으로 번역해 출간한 바 있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사부대중이 함께 정대불사를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 삶 지표로”

봉은사 1229주년 정대불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봉은사 판전(版殿) 경판이 나들이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17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정대불사’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명 스님은 “정대불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삶의 지표로 삼고 불자로서 보살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의 행사”라고 설명하고 “정대불사를 봉행하는 인연으로 모든 생명이 무명의 어두움을 벗어나 부처님 자비광명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은사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핵심 사찰로서 포교와 전법에 매진함으로써 불교 중흥과 국가 평안을 이뤄 나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충 대종사 30주기 추모대법회

천태종 10월 17일 구인사서
종정 도용 대종사 등 참석해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끈 대충 대종사의 열반 30주기 추모대법회가 총본산 구인사에서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10월 17일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도용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스님과 김문근 단양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도용 대종사와 종단 스님, 내빈의 헌향 · 헌화로 시작됐다. 헌향 · 헌화가 끝난 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충 대종사님은 살아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셨다. 그 자비로움은 말로 표현을 다할 수 없다”면서 “매일 고통 받는 중생들을 한결같이 모두 살피시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제도해주셨다”고 회상했다.

덕수 스님은 또 “대종사님을 친견한 불자라면 한 사람도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돌아보면 대종사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종단의 역사가 짧아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때라 늘 고생만 하셨다”며 “대종사님의 은혜를 지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정진해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함께 마음을 잘 닦아서 열심히 정진해 성불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문근 단양군수는 추도사에서 “대종사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중생을 보살피고 종단 발전에 힘쓰셨다”면서 “단양군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천태종의 발전도 기원하겠다. 대종사님의 자비롭고 거룩함을 마음속에 기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반대재가 끝난 뒤 오후 1시부터 스님들과 신도들은 강 건너 대충 대종사 적멸궁에서 적멸궁재를 지냈다.

한편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낸 대충 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상월원각대조사의 뒤를 이어 제2대 종정에 취임, 천태종의 중흥을 이끌었으며,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 조실에서 원적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관 장 종상

원 장 덕민 주 지 종천
선원장 종우 교 무 정수
재 무 성심 포 교 성제
사 서 성주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분당 포교당 석가사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 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불국사 템플스테이

대 중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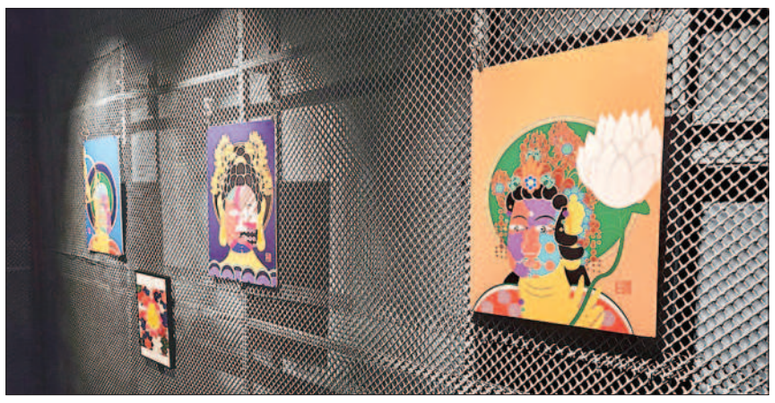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휴머니즘 담긴 불교 작품으로 우직하게”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⑥ 김동현 불교 일러스트 작가

학부 시절, 교수 추천으로
불교 일러스트 세계로 입문
현대적 풀어낸 작품 입소문
전문 작가 활동…전시까지



김동현 작가의 일러스트에는 자유로운 발상에서 비롯된 재미와 휴머니즘이 담겼다.



자신의 작품 앞에 선 김동현 작가.

김동현 작가 작품 살펴보기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doridongs_illust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를 기반으로 한 휴머니즘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싶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보살, 폭죽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최근 불교계에서 ‘좀 뜬다’고 입소문이 난 김동현 불교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들에는 팝아트를 보는 듯한 자유로운 발상이 가득하다.

“불교미술을 공부하며 처음 티베트 탕카를 보았는데 무서운 화풍임에도 익살스럽게 느껴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후 신중도를 접하면서 수많은 소재들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 나만의 무언가를 담아야겠다 생각했지요.”

김 작가가 처음부터 불교 일러스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민화를 베이스로 작업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교수가 그에게 불교 일러스트 작업을 제안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김 작가는 그때부터 불교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불화 속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많은 이야기를 그림 한 장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느꼈다는 김 작가는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불교를 표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작품을 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퀄리티를 떠나 주제 자체가 생소했고 거기에 재미와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현 작가는 거기서 쾌감을 느꼈다. 사람들이 자신이 작품에서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 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었으면 좋겠다는 발원으로 불교 일러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점차 작품을 알아보는 한 독지가가 생겼고 의뢰를 받아 제작한 작품들이 지역의 한 카페를 장식하기도 했다. 작품을 알아보고 꾸준히 구매해주는 불자들은 작가로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다. 불화가 아니다보니 불교계에서 큰 수요가 없었고, 외부활동에서도 제약이 많았다. 종교색이 있는 일러스트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앞으로의 작품을 고민하던 터에 불교크리에이터 모집 공고를 봤다.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되면서 인정받았다는 마음이 크다. 이후 좋은 일도 이어져 최근 서울 홍익대 인근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신작 15점을 비롯해 각종 수상작품 등 30여 점이 전시됐다.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상상했던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이미지에 담은 작품들이 주를 이뤘기에 뜻깊다.

함께 위촉된 크리에이터 4기들과의 템플스테이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1박 2일 동안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에 대한 조언을 나눌 수 있었고, 각기 다른 콘텐츠를 공유하며 스스로 시야도 넓어졌다. 앞으로의 작품에 대한 용기를 얻은 것은 덤이다.

김동현 작가는 불교가 더욱 사랑받는 종교가 되길 희망한다.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죠. 불교가 좀 더 대중에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제 작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동현 작가는 현재 ‘태산(太山)’이라는 아호로 활동 중이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아호에는 ‘큰 산처럼 우직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겼다. 그는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불교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단장, 조계종 13대 포교사단장 연임

포교사단, 10월 14일 선거 실시
대의원 344명 중 297명 참여
서울 등 13개 지역단장도 선출



조계종 포교사단이 10월 14일 실시한 13대 포교사단장 및 지역단장 선거에서 김영석 단장이 연임됐다.〈사진〉 김영석 단장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3개 지역단에서 동시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대의원 344명 중 297명이 참석, 86.3%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에서 김영석 단장은 190표를 획득, 연임을 확정했다.

김영석 단장은 “포교활동력 강화 지원과 포교사위상 강화 및 자부심 고양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교사단은 지역단장 선출도 마무리했다. 서울, 광주전남, 인천경기 지역단장은 복수출마로 선거가 실시됐으며 나머지는 단독 출마자는 무투표 당선됐다. 임은호 기자

신계사 복원 16주년 기념 ‘e-book’ 사진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계종·민추본 홈페이지 공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민추본)가 금강산 신계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해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e-book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은 조계종과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전은 1부와 2부로 나눠 구성됐다. 1부는 ‘금강산 4대 사찰’을 주제로 전쟁으로 소실된 유점사, 장안사의 과거 모습과 신계사의 복원 공사 이전 모습이 흑백사진으로 소개된다. 유일하게 전쟁의 포화를 피해 남아있는 표훈사의 과거와 현재도 비교해 감상할 수 있다.

표훈사 말사인 정양사와 보덕암의 과거와 현재도 함께 전시됐다. 정양사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불탄 헐설루, 나한전, 영산전의 옛 모습과 전화(戰禍)를 피해 현재까지 남은 반야보전과 약사전을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정양사 약사전은 전쟁 이후 보수 과정에서 처마 밑기둥들이 없어지고, 문틀이 바뀌는 등 원형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전 2부는 ‘신계사 복원’을 주제로 착공식부터 준공식까지 복원 과정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전시했다. 복원 공사 이전인 2001년 3월 복원기원법회부터 남북 불교계의 실무회담, 복원된 이후 신계사를 찾은 남측 불자들의 모습까지 현장감 있는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성철 스님 법향 여전히”

성철사상硏, 10월 14일 학술대회
퇴옹학술상에 도민 스님·신광희



성철 스님 원적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성철사상연구원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10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및 제6회 퇴옹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는 성철 스님과 함께한 시간을 회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첫 만남을 떠올린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1971년 백련암에서 3천배를 하고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충만했다”면서 “그날 이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불기자심의 가르침은 좌우명이 됐고, 50년 풍상을 이어주는 견고한 법연의 고리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성철 큰스님의 거룩한 법향 속에 깨달음의 열매가 영그는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6회 퇴옹학술상 시상식도 열렸다. 수상자로는 교리부문에서 동학사승가대학 교수 도민 스님이 ‘마하빠자빠띠의 출가와 비구니교단의 성립-팔경법 성립을 중심으로’로, 응용부문에는 신광희 동국대 연구교수가 ‘현재 심사정 필 〈보납도〉 연구’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은호 기자

“‘코쟁이’에게 귀 기울여준 구산 스님”

보조사상硏, 10월 13일 법련사서
열반 40주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은 10월 13일 서울 법련사 3층 대웅보전에서 ‘한국불교 대중화에 끼친 구산 스님의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국내 학자들뿐 아니라 세계적인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구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도 직접 참가, 삶과 가르침을 조명했다.

특히 코펜하겐대 도리트 바그너 씨는 구산 스님과 1977~1983년 주고 받은 서신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신에는 어려움을 견뎌내어 소망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 성실히 마음을 살펴 마음의 밝은 빛을 볼 것 등에 대한 가르침이 담겼다.

독일 보훔대 헨릭 소렌센 씨는 1982년 코펜하겐에서 선수행 마지막 날, 스님의 연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구산 스님은 능력 있고 일에 몰두하는 스승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의 질문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건 또는 심각한 것이건 간에 우리 코쟁이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임은호 기자

“불광 49주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잠실 불광사,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법회 봉행

잠실 불광사가 불광 창립 49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불광사(주지 동명)는 10월 14일 경내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광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동명 스님은 “49년을 맞이한 불광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다”면서 “광덕 큰스님의 불광창립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불광운동을 펼치신 근본정신과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수행, 법회활성화, 교육사업 증진,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 등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로 나선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불광 대중의 화합을 당부했다. 이어 불광사 대중들은 불광 창립 발원문을 부처님전에 봉독해 올렸으며, 기념 축하공연으로 파라미타합창단의 찬탄곡 ‘백만송이 장미’ 음성공양 등이 이어졌다. 또한, 수행 정진과 봉사로 헌신한 모범 신도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범 어 사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10월 14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제8회 학술대회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 등 주요 내외빈과 발표자, 과학원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복선 박사


이광숙 박사


치엔테 린 소장


이상호 박사


강황진 박사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장

심리학 · 의학 · 과학으로 '대행 사상' 증명하다

한마음과학원 제8회 학술대회 성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에 기반한 '한마음과학'의 면면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10월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을 주제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사상을 심리학, 의학, 첨단과학으로 통섭 · 증명하는 연구들이 발표됐다.

'한마음심리학' 가능성 모색 '눈길'

특히, 이번 학술대회 세션1 발제자 진복선 박사(한마음과학원)는 '심리학 역사의 관점으로 본 인간과 마음에 대한 고찰: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 탐색'을 통해 서구 심리학 이론과 대행 사상을 비교 · 고찰하며, 대행 사상에 기반한 '한마음심리학'의 가능성을 살펴 눈길을 끌었다.

진복선 박사는 서구에서는 △구성주의 심리학 △기능주의심리학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등이 나타났고 이들과 대행 사상은 유사성과 상이성이 함께 확인됨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경험 · 분석적 접근을 통해 나타난 구성주의 심리학의 내성법과 주인공 관법은 마음 연구를 위해 모두 내면으로 들어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내성법은 실험실의 엄격한 통제로 자신의 마음을 보고하는 방식이나 주인공 관법은 마음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으로 접근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현재 의식에 의해 억압돼 있는 드러날 수 없는 의식으로 봤지만, 대행 선사는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고 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복선 박사는 "프로이드는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반면, 대행 선사는 의식과 시공간을 확장시켜 설명한다"며 "이런 관점은 융의 '집단 무의식'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현대 심리학의 추세가 "뇌과학, 신경과학 등에 기반한 마음의 인지심리학적 접근과 우주 운용체계를 마음에서 찾는 통합심리학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제시한 진복순 박사는 "두 심리학적 방향을 모두 아울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대행 선사의 한마음과 주인공 관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복순 박사는 "대행 선사는 심리학의 주도권을 '과학'에서 '마음'으로 환원시켰고, 인간성에서 멀어진 신성(神性)을 자신(自神)의 개념으로 회복을 시도하면서 마음은 유능한 주재자일 뿐 아니라 전지전능한 창조자로 인식했다"면서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한마음심리학'은 독자적 논리 체계를 갖추고 마음작용의 심리학적 해석이 잘 구조화 되면, 기존 심리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천적 측면에서도 주인공 관법을 현실 문제해결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정교함을 마련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실천 방법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통합이론과 대행선과의 접점은?

학술대회 세션1에서는 이탈리아 심리학자로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을 창시한 로베르토 아사지올리(Roberto Assagioli, 1888~1974)의 정신통합이론과 대행선의 접점을 살핀 논문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광숙 박사(한마음과학원)와 문진건 교수(동방대학원대학)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과 아사지올리의 탈동일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대행선과 정신통합은 의식의 확장을 통해 관찰의 힘을 발달시켜 자기 실현과 본래의 자기와 합일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제자 이광숙 박사에 따르면 아사지올리가 주창한 '정신통합'은 정신분석의 이론과 영적 전통의 가르침을 통합하려는 심리학으로 의식의 성장과 자기의 본래적 모습을 추구하는 심리학적 이론이다. 아사지올리는 자기에 대해 설명할 때 '의식적 자기(I)'와 '높은 자기(Self)'를 언급한다. I는 자각과 의지가 주요 기능이며, Self는 의식적 인격의 통제를 넘어서 조절하는 원천이다.

이에 이광숙 박사는 "대행선과 정신통합은 모두 인간 정신의 잠재력 실현과 전일성(全一性) 회복에 목표를 두고 그 전일성의 이론적 근거를 의식의 영역을 초월한 참다운 자기인 주인공 또는 Self에 두고 있다"면서 "대행선의 목적은 무명을 거둬 우리의 본래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본과 직결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고 정신통합의 목적도 인간 정신의 전일성 회복으로서, 초월적 자기(Self)와의 합일이라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식의 관찰하는 힘을 통한 탈동일시와 순수한 자각도 대행선과 정신통합의 유사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광숙 박사는 "주인공 관법에서는 주인공을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무심(無心)'의 상태를 강조한다. 주인공 관법은 무심이 되기 위한 수행이면서 무심으로 하는 수행"이라며 "이는 정신통합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탈동일시가 된 후에 남는 것은 순수한 자기의식과 자아실현의 중심인 '자신의 본질(Self)'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포스터 발표를 보고 있다.

진복선, '한마음심리학' 가능성 타진
심리학史 분석, 대행사상과 비교고찰
"한마음심리학, 기존 심리학 한계극복
확장된 첨단 심리학으로 발전 가능해"

이광숙, 아사지올리 '정신통합이론'과
대행 사상 비교분석 접점 모색 '눈길'

이준엽 원장 등 한마음과학원 의학팀
만성질환 선원 신도 22명 면담 조사
"질병 불안을 벗는 데 마음공부 도움
마음공부 포함한 질병 관리 개발돼야"

만성질환 신도들 면담조사 해보니…

세션2에서는 당뇨, 고혈압 등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오랜 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마음 다스리기 훈련을 포함한 질병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마음과학원 의학팀은 세션2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일 선원 등록자를 대상으로'를 통해 한마음선원 신도 중 만성질환자들을 심층 면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KCI 등재지인 〈대한질적연구학회지〉제8권(2023)에 수록되기도 했다.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장 · 김미지 한마음한의원장 · 김종훈 김종훈치과원장 · 김주현 강원대 간호학과 명예교수 · 장미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한마음과학원 의학팀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도 중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 22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2022년 6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평균 연령은 69.2세였다. 이중 18명은 치유를 위해 5분이상 주인공 관법을 시행하고 있었고, 매일 수행하는 사람은 9명에 달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과로와 스트레스, 가족력과 노화를 질병의 원인으로 꼽았다.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으로 △의료진의 처방 준수 △운동과 식이요법의 실천 △봉사활동 △마음 다스리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인공 관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신도들은 "명상을 하며 10~20분이 지나면 혈압이 딱 떨어지더라" "신행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누굴 탓하고 핑계 대는 것이 없어졌다"고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신도들도 "11년 전에는 못 걸을 정도였는데, 선원에서 봉사하면서 좋아졌다"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원 의학팀은 "조사 참여 신도 대다수가 병원 진료와 식이요법과 더불어 수행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분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 관법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를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사회생활로 인한 식이요법 불편함과 교육자 중심의 질병 관리 교육들이 실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환에 대한 심층 · 전문적 교육, 질환 정보 공유와 더불어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되기 교육'이 함께 병행되길 바랐다.

과학원 의학팀은 "조사 참여자들은 공동체로서의 질병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되길 희망했다"면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전문가의 지도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한 종교적, 영적인 부분에서 심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질병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행 사상에 대한 통섭적 연구들

이와 함께 강황진 박사(한마음과학원)는 '한마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발표했다. 강황진 박사는 '실용 가능한 고온초전도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한마음과학적 관점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삼각원형의 순환원리를 적용해 한마음과학의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근본자리에 맡기고 마음을 낸 것이 현상화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인지한 '납몰리황 화합물(Pb3Mo6S8)'의 조성을 특정하고 자기적성질 측정장치(MPMS)를 이용해 초전도 임계온도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0℃에서 3, 6시간씩 각각 열처리한 두 종류의 시료에 대해서 10외르스테드(Oe)의 자기장을 인가하고 초전도 임계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3시간 처리한 경우에서 12K, 6시간 처리한 경우 15K를 각각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순도를 좀 더 올리고 합성조건을 더욱 최적화해 목표한 납몰리황 화합물의 단일상을 얻을 수 있다면 결과가 개선될 것"이라며 "한마음과학적 연구기법을 과학적 난제 해결이나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박사(서강대)는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를 통해 한마음과학관에 바탕되는 '한마음 원리'와 대행 선사의 친설을 통해 연구자 자신이 발견한 '주인공 원리'의 연관관계를 조명했다.

또한, 치엔테 린 대만 자제대학 종교와 인문학 연구소장은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의 상호합의성: 인순 대사와 증엄 대사의 철학'에서 인순 · 증엄 대사의 철학이 불교적 인본주의와 이타주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살폈다.

세션 발표 이후에는 이화행 동명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질의와 답변, 논의 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 앞서서는 입재식이 봉행됐다. 입재식과 학술대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 이향희 한마음과학원 부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행 선사의 사상을 다양한 학문에 접목해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준 한마음과학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상을 살리는 연구에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이 도(道)고 생활이 진리고 생활이 과학'이라고 강조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상기한 혜수 스님은 "큰스님 말씀대로 과학원 소임을 살고 심부름하면서 학술대회를 하고 연구 · 발표하는 것이 이 세상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에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6대 다류, 부산서 즐긴다
〈茶類〉

제10회 부산기장국체茶문화축제 11월 5일 개최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서
찻자리 60팀 참가 · 체험도
허황후차인대상 고선희 원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허황후 헌다례를 통해 가야문화와 불교의 역사를 고찰하고 대한민국 차의 시조를 새롭게 기리는 '부산기장국체차문화축제'가 10회째를 맞는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11월 5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부산기장국체차(茶)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개회는 오후 1시 정관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이날 대한민국 제1호 차인을 기리는 허황후 헌다례를 봉행해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문화상 시상식과 10회를 기념하는 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찻자리를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세계 6대 다류를 체험하는 찻자리 60팀이 참여하며, 가족 체험 부스 및 차문화 발전을 위한 판매부스도 운영된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10년 동안 행사를 통해 다인들의 업적과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차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차인을 찾아 허황후대상과 김수로문화대상 등을 수여했다. 역대 수상자들은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장,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한국차인대학 분원장, 정영숙 한국다도협회 이사장, 김지순 제주 음식명인, 김영희 한국차인연합회 차인지 편집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인들이다.

이번 허황후차인대상은 고선희 문경차문화연구원장이, 김수로 문화대상은 박희준 다유락차문화원 대표가 수상한다. 고 원장은 문화 발전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극복하고 차문화와 문경지역 특성을 조합한 새로운 차문화행사 '문경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박 대표는 전국대학다회연합회와 한국차문화고전연구회, 한국발효차연구소 등을 조직해 차문화연구에 앞장서왔다.

부산기장국체차문화축제는 무엇보다 차를 통한 화합의 장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매년 한 · 중 · 일의 실력 있는 차인을 초대해 뛰어난 차문화를 지역민에게 소개했다. 세계 6대 다류 찻자리 대회와 시음 찻자리를 제공해 차공양을 올렸으며 각종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 및 가족들을 위한 힐링의 장을 선사했다. 아울러 중국 자사호와 기장 도예촌의 도자기 문화를 교류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인도 타타그룹에서 운영하는 아쌈 지역 차밭의 관계자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며 문화교류에 앞장서왔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5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부산기장국체차(茶)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이사장 보혜스님의 헌다례. 자료사진

이사장 보혜 스님은 "함께하는 차인들의 정은 더 없는 반갑다. 차생활이 깊게 물든 차인들, 언제 봐도 변함없는 도반 같은 차인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축제 때마다 서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 된다"며 "가야문화를 이끈 대장부 같은 허황후는 김해 허씨 시조이며 불교와 차의 시조다. 10년 동안 발전한 차문화축제가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아름다운 장으로 회향해 진심으로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은 제9회 전영택문학상(시부문)을 수상했다. 10월 17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혜 스님은 "전국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장르별로 작품의 우수성과 작가 활동을 심사하는 전영택문학상을 수상해 큰 영광"이라며 "문학상의 뜻에 따라 창작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글을 쓰라는 의미로 받아 향기로운 글을 쓰는 문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전영택문학상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범어사,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지정

안치소 · 야전병원 역할도
10월 23일 인증서 전달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범어사는 국립현충원의 시원(始原)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범어사는 전사자를 위한 추모 위령재를 봉행하고 야전병원의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북한군의 공격으로 부산은 대한민국 임시수도로 정해졌고, 범어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의 안식처를 담당했다. 이뿐 아니라 '순국전몰장병 영현안치소'를 설치해 국립현충원 역할을 수행했다.


1952년 4월 6일 현충시설인 범어사에서 봉행된 제1회 합동추도식.

1952년 4월 6일 범어사 제1회 경남지역 전몰장병합동 추모식을 봉행했으며, 그해 6월 6일에는 전국 군경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전몰장병합동 추모식은 조실이었던 동산 스님이 법주(法主)를 맡아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유엔군사령관, 외교사절단, 미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 백선엽 장군 등도 참석한 국가 차원 행사로 치러졌다. 이어 1953년 8월 21일 제3차 3군 추도식 및 3군 전몰장병 합동추도식을 봉행하며 전쟁 당시 야전병원 및 국립현충원 기능을 담당했다.

범어사는 지난 1월 17일 부산보훈청에 현충시설 지정을 신청했으며 5월 11일 현충시설로 결정됐다. 범어사 현충시설 지정 인증서 전달식은 팔관회가 열리는 10월 23일 호국영령위령재에서 진행됐다.

인증서 전달식에는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강관범 육군 53보병사단장, 이상식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주성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김주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김선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지부장 등 관계자와 부산지역 9개 보훈 단체 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지 보운 스님은 "6 · 25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범어사에 '순국전몰장병 영현안치소'를 설치하고, 불교는 국가의 위기 속에 자비의 수호신장으로 역할을 다해 위안을 안겨주는 사명을 지켰다"며 "이번 현충시설 지정은 범어사와 불교의 호국 역할을 인정받고 위상을 올린 큰 의미가 됐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자 건강증진 도움 되길"

부산불교교육대학–거인병원 MOU…의료혜택 제공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부산 정형외과 거인병원(대표원장 이승준)이 불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거인병원은 10월 18일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환자 편의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불교교육대학 직원과 학생들은 거인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한해 비급여 진료 부문 할인 혜택을 받는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좋은 의료기관과 인연을 맺고 많은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육체의 병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병도 육체의 영향을 받으니 두루 잘 다스리는 의술을 펼쳐 불자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시라"고 인사했다.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은 "스님 말씀처럼 육체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도 잘 보살피도록 하겠다. 모든 분들을 정성으로 돌봐 건강하고 행복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거인병원은 지난 2022년 11월에 개원한 정형외과 중점병원이다. 정형외과 외 신경외과, 내과 등을 진료하며 관절 및 척추, 스포츠 의학을 전문으로 담당한다. 의료진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개 병상을 갖춘 복합의료시설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임진왜란 순국선열 넋 추모

동래구불교연합회 '동래 임진의총 추모재향'



임진왜란 431주기를 맞아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는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용하)는 10월 13일 부산 금강공원 내 동래임진의총에서 '임진왜란 431주기 동래 임진의총 순국선열 추모재향'을 봉행했다. 추모재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용하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스님과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용하 스님은 "주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발원하며 정성을 다해 추모재를 올린다"며 "모든 국민이 안락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동래임진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아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순국선열의 유골을 거두어 모은 무덤이다. 2000년 전등사 주지 도문 스님이 동래구청과 협의 후 매년 음력 4월 15일 재를 올렸으며, 2010년부터는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일에 맞춰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가을음악회로 힐링 선사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15일 경내 독성각 잔디마당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홍법사는 음악회에 앞서 아미타경 48독 독송기도를 진행하며 수행의 가치를 알리고 싱잉볼 명상과 관현악 연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사진〉

(사)싱잉볼치유의소리가 주관한 이번 가을음악회는 동림소년소녀합창단과 세향합창단의 무대와 모듬북 협주곡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으며, 특히 아미타 도량 홍법사의 풍경과 어울린 정취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홍법사를 찾은 시민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의자에 편히 누워 음악회를 감상했으며, 불자들은 독성각 및 나무 그늘 아래 등에서 음악회에 참여했다.

심산 스님은 "문화를 누리고 가을소풍과 같은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쉼을 얻고 힘을 얻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 도 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박덕수
총무부장 강시용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구성해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김진철
규정부장 윤갈웅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김경천
황세열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서덕재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 cheontae 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 덕
신도회장 김명진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약사정사, 대학생 전법·지역복지 선도한다

창건 15주년 맞아 (사)원명 창립
10월 15일 법당서 창립법회 봉행
경상대 불교학생회에 장학금 전달
상봉동 지역 어르신들에 만발공양

성낙두 경남지사장


약사정사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원명'을 창립했다.

진주 약사정사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대학생 전법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한 공동체 '사단법인 원명'을 창립했다.

10월 15일 진주 약사정사 대법당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서는 진주 국립경상대 불교학생회인 연화회에 장학금 전달과 진주시 상봉동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도시락 나눔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약사정사 주지 진여 스님은 연화회에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사)원명 창립을 맞아 진주시 상봉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150개를 만발공양했다.

주지 진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규모가 작은 약사정사 도량에서 15년간 환하게 법등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동고동락한 불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감사하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이에게 이익된 일만 하고 살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늘 중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육바라밀을 몸소 실천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창립된 (사)원명은 지금까지 약사정사가 진행한 인재불사와 복지불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약사정사가 진주 지역 불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절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솜이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회 회장은 "약사정사에서 후원해주신 장학금으로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 우리 대학을 시작으로 창원국립대도 불교학생회가 창립됐고, 경남대와 진주보건대에서 불교학생회 창립이 준비 중"이라며 "경남 지역 대학생 포교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약사정사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배인엽 상봉동 동장은 "창건 15주년을 맞은 약사정사는 상봉동 주민들을 위해 만발공양과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전달, 백미 나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역 내 노인들과 기초수급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동장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된 (사)원명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상봉동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나눔 만발공양을 할 예정이다.

개산 1221주년 해인사, 개산조·역대 조사 선양

10월 16일 일원서 법회 · 다례재
방장 원각 스님 등 총림대중 참여
국화 전시 등 개산 문화행사 다채


해인사가 10월 16일 개산 1221주년 기념법회와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개산 1221주년을 맞아 개산종조 순응 · 이정 양대조사와 개산초부터 해인사에 주석한 역대조사 스님들에 대한 다례재를 봉행했다.

해인사(주지 혜일)는 10월 16일 경내 대적광전과 조사전, 비림에서 개산 1221주년 기념법회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등 해인총림 대중들과 김윤철 합천군수, 각급 내외빈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개산 1221주년 기념법회는 삼귀의, 원각 대종사의 헌향, 혜일 스님의 헌다, 내외빈 헌화, 불전예경, 고유문 낭독,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혜일 스님은 개산 1221주년 고유문을 통해 "신라, 고려, 조선 등 여러 왕조가 바뀌고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해왔다"며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나라와 민족과 불교를 위해 헌신해 온 개산종조와 역대조사들의 위법망구한 원력과 수행 교화를 본받아 언제나 청백수행가풍이 살아있는 대적광토 해인삼매 도량이 되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부처님에게 고했다.

한편, 해인사는 10월 27일과 28일 제63회 해인사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해인사 개산 기념 국화 전시회는 10월 29일까지 해인사 일주문 일대에서 진행되며 '소릿길을 걸어 해인사를 열다' 행사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렸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음식 만들며 우수성 체험해요"

강진 백련사, 10월 14일 사찰음식 경연대회


해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련사는 행사에 앞서 지난 13일 백련사 만경루에서 팔국사 다례문화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음식의 화려한 경연이 남도사찰 1번지에서 펼쳐졌다.〈사진〉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는 10월 14일 경내에서 '제3회 만덕산 백련사 차와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사찰음식의 맛과 의미를 뽐냈다.

백련사와 (사)홍승스님사찰음식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경연대회에는 10개 팀이 사전에 음식을 만들어 사찰음식의 품격을 보여주는 전시경연에 참여했고 일반인, 학생(초당대, 영산대, 광주대 등)으로 구성된 8팀은 직접 90분간 열띤 조리를 진행하는 라이브경연을 펼쳤다.

주지 설도 스님은 "음식이 어떻게 내 앞까지 왔을까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는 것, 이것이 사찰음식"이라며 "눈과 입으로만 즐기지 말고 그 음식에 깃든 정신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홍승 스님도 "이번 경연대회는 사찰음식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채식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사찰음식을 통

표충사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증식 나선다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와 비단벌레 서식지 보전 연구 협력


비단벌레 서식지 보전과 증식 개체의 방사를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비단벌레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와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가 천연기념물 496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 증식에 나선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와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센터장 이대암)는 10월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비단벌레 서식지 보전 및 생태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사진〉

양 기관은 △비단벌레의 생리, 생태 연구, 증식 및 복원을 위한 협력 △ 비단

전주 금선암 제3회 금선보은문화제

효문화 계승과 선양 나서


화재 제27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가르침에 따라 삼보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효문화 계승과 선양을 위한 제3회 금선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금선암 자비공덕회 주관으로 10월 15일 전주시 완산체련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행사는 금선암이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전북도문화재 지정을 기념하고 효문화 계승을 위해 마련됐다.

주지 덕산 스님은 "전라북도 유형문

정읍 보림사 제2회 대숲길 쉼 음악회

현대인 치유 · 힐링 위해 조성


념하기 위해 열렸다. 대숲길은 종진 스님이 보림사 주지 부임 후 현대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 조성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가 10월 14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2회 대 숲길 '쉼'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산골의 작은 산사까지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함께 음악회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림사 쉼음악회는 경내 대웅전 옆에 3천여 평 규모의 대숲길 조성을 기

영암 도갑사, 도선 국사 문화예술제

10월 14일 경내서 개최


과 질병으로 고통이 가득하다"며 "화합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풍수지리를 통해 지방 불교문화의 혁신을 이끈 도선 국사(827~898)를 선양하는 문화예술제가 열렸다.〈사진〉

영암 도갑사(주지 수관)는 10월 14일 경내에서 '도선국사 탄신 제1196주년 기념 제18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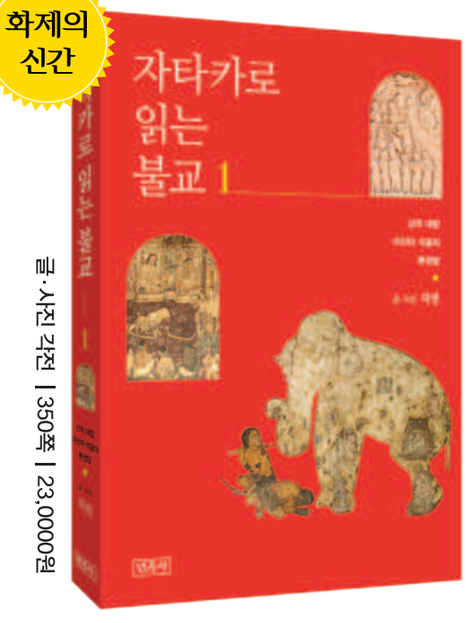
주지 수관 스님은 "세계는 지금 전쟁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화제의 신간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대행 선사 삶 · 사상 · 유훈, 미국에 알리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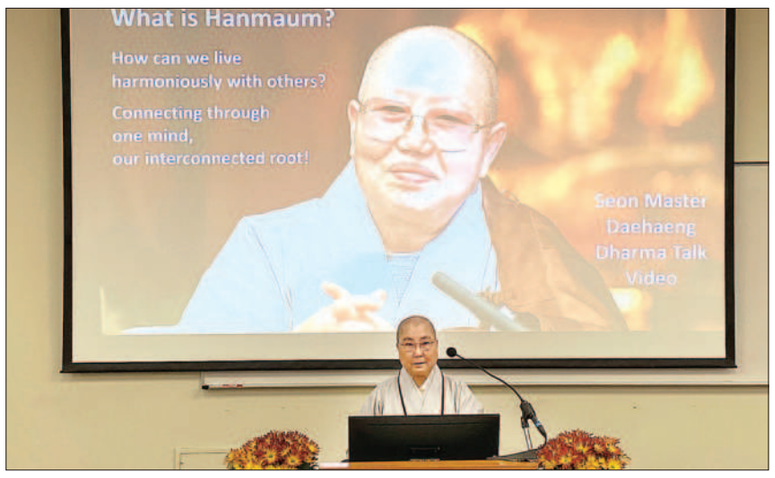
혜찬 · 혜유 스님, 10월 1~3일 방미
브리검영대학 국제심포지엄 초정돼
대행 사상, 칠보 · 구정탑 주제 발표

주인공 관법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조성된 칠보탑, 구정탑의 의미가 미국에 전해졌다.

한마음선원 산하연구소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과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혜유 스님(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10월 1~3일 열린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종교 국제연구센터가 주최한 '제30회 법과 종교 국제 심포지엄' 에 발표자로 초청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미국에 알렸다.

두 스님의 참여는 지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됐던 브렛 샬프스(Brett G. Scharffs) 브리검영대 법과 종교 국제연구센터장과의 인연으로 이뤄졌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 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혜찬 스님은 '모두 함께 자유인이 되는 길(The Path for All Beings to Become Free Together)' 을 통해 대행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했으며, 혜유 스님은 '탑, 자유와 평화의 상징(Pagoda as a Symbol of Freedom and Peace)' 을 통해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조성된 칠보탑과 구정탑의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이 10월 3일 미국 브리검영대 국제심포지움에서 대행 선사의 삶과 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엄에 함께한 150여 명의 동참자들.

대행 선사의 생애를 소개한 혜찬 스님은 "대행 사상의 핵심은 누구나 본래 자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행 선사는 일체가 찰나찰나 공해서 나투고 돌아가기 때문에, 깨달음에 있어서는 남녀나 비구, 비구니 차별없이 만물만생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사는 종교를 떠난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를 통해 '종교란 이름이며, 같은 지구 안에 살면서, 사람들이 각각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니 종교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님' 을 강조하셨다"고 소개했다.

"대행 선사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원리로 작용한다' 고 했다"고 밝힌 혜찬 스님은 "가정, 사회, 국가도 공생이 된다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나고 대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혜유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칠보탑(우주탑), 구정탑(도량탑)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탑 조성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전했다.

스님에 따르면 법당 위의 칠보탑은 부처님을, 도량탑은 부처님 가르침을, 대행 선사의 동상은 승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불교의 삼보인 '불 · 법 · 승' 을 한 도량에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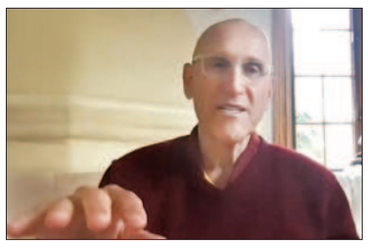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는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오공(五空) 사상을 칠보탑과 구정탑에 구현했다. 이에 대해 선사는 '모든 중생이 대자유를 성취하라는 상징' 이라고 했다"면서 " '탑돌이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갖춰진 주장자를 밝혀 내면의 탑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그것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곧 에너지의 중심처가 된다' 고 대행 선사는 말씀하셨다"고 조성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제심포지엄에는 70여 개국에서 종교지도자, 대학 교수, 비영리단체 활동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불교와 현대의학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달라이라마 주치의 배리 커진 스님 인터뷰

달라이라마의 양방주치의로 유명한 배리 커진(Barry Kerzin) 스님은 최근 의료전문가들을 위한 웹저널인 '매드 스캐이프' 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교와 현대의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0월 6일, 매드 스캐이프는 스님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매드 스캐이프와 인터뷰하는 커진스님.
사진출처=매드스캐이프 인터뷰 화면 캡쳐

커진 스님은 현재 자비를 의료의 핵심사명으로 삼았다. 2015년에 환자의 치료와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연민, 마음챙김, 회복력을 교육하는 '이타주의 의학 연구소' 를 설립했다. 또 불교철학과 의학의 교차점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가치 연구소' 도 설립했다.

커진 스님은 "현재 자신이 세운 두 연구소에서의 강의는 물론 달라이라마와 다람살라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주 2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매일 최소 2시간씩의 명상, 주요 의학저널의 최신연구결과 확인 등 바쁜 나날을 보낸다.

스님은 "비록 일반 사회인들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낸다" 면서 "공감을 넘어 자비로 나아가는 실천이 나의 강한 힘의 원천이다. 지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진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이자 불교 출가자라는 입장에서 다른 의료종사자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매드 스캐이프이 요청에 "의료종사자들은 환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자비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고통과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이 연구하는 모든 의학적 핵심은 바로 자비라고 설명하며 "환자에 대한 자비도 중요하지만, 자기자신에 대한 자비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우리는 자신을 많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잘 안 된 일에 연연하다가 급락하곤 한다. 그걸 검토하고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된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내가 달라이라마의 주치의라니! 이건 꿈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꼬집어 보곤한다"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옷 갈아입는 태자 불상…겨울옷으로 환복

츄구지, 쇼토쿠 태자상 환복법요
내년 5월 31일까지 본당서 공개

고대 일본불교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쇼토쿠 태자는 일본에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져 태자신앙(太子信仰)이라는 고유의 신앙도 생겨났다. 이 태자신앙에서 중요한 사찰로 꼽히는 나라의 츄구지(中宮寺)에 봉안된 쇼토쿠 태자상에 옷을 갈아 입히는 법요가 봉행돼 화제다. 지난 10월 2일 일본의 '나라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은 츄구지에서 봉행된 환복 법요에 대해 보도했다.

츄구지는 7세기 초반, 쇼토쿠 태자가 어머니를 위해 건립한 사찰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비구니 사찰로도 유명하다. 이곳 본당에 안치된 본존인 보살반가상은 일본의 대표적인 국보로 꼽힌다. 이 본존의 협시로 안치된 '쇼토쿠태자이세상(聖德太子二歲像)' 은 12세기경에 조성된 불상으로 쇼토쿠 태자가 2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삼보께 예경했다는 설화를 묘사한 것이다. 츄구지에서는 매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이 태자상에 옷을 입히는 법요를 봉행하고 있다.


태자상에 새옷을 공양올리는 히노니시 코존 스님과, 여름동안 입혀졌던 옷(우측).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지난 10월 1일, 츄구지 본당에서 열린 법요에서 태자상은 지난 6월 입혀진 여름옷을 벗고, 겨울옷을 입었다. 이번에 공양된 옷은 복숭아꽃과 소나무잎을 수놓은 두꺼운 녹색 비단 옷으로 자수는 교토에 거주하는 일본전통자수의 일인자인 나가쿠사 토시아키 작가의 작품이다.

나가쿠사 작가는 츄구지가 소장한 자수 불화인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荼羅繡帳)' 의 복원 및 재현을 위해 츄구지와 인연을 맺었고, 연구결과물의 일환으로 지난 천수국만다라수장의 도안과 기법을 복원하여 6월 태자상에 입히는 여름용 의복을 제작한 것을 인연으로 겨울용 옷도 제작하게 된 것으로 전했다.

법요식에서 츄구지에 의복을 공양올린 나가쿠사 작가는 "쇼토쿠 태자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 태자가 '복숭아꽃은 한 때에 번성하나, 소나무는 만년에 번성하기에 소나무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태자상에 겨울옷을 입힌 츄구지의 주지 히노니시 코존 스님은 "귀엽고 예쁜 옷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며 옷을 공양 올리는 데 조력한 모든 대중에 감사를 표했다. 새로 옷을 입은 쇼토쿠 태자상은 내년 5월 31일까지 츄구지 본당에서 공개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시아계 미국인 불자 비율 감소"

퓨리서치센터 2023년 연구 결과

아시아계 미국 성인 불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10월 11일 "자신을 불교도라고 밝히는 아시아계 미국 성인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 성인 중 '무교' 라고 답한 사람은 2012년 26%에서 올해 32%까지 증가했다. 또 2012년만 해도 '불교' 라고 답한 사람은 14%였지만 올해는 11%로 줄었다. 다만 응답자의 21%는 '불자는 아니지만 조상 · 문화 등 이유로 불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 고 답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시엔다 하이츠에 있는 시라이 사원. 사진출처=wikimedia.org

세부적으로는 아시아계 중에서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자신을 불자라고 밝히는 비율이 높았다. 자신을 '불자' 라고 밝힌 베트남계 미국인은 무려 37%에 달했고, 이 밖에 동남아시아계 미국인은 38%였다. 반면 동북아시아계의 경우 자신을 '불자' 라고 밝힌 비율은 한국계 3%, 중국계 12%, 일본계 19% 등에 그쳤다. '불자는 아니지만 조상 · 문화 등 이유로 불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 고 답한 비율은 한국 28%, 중국 38%, 일본 62%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제11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3년 10월 18일(목) ~11월 16일(목)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 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2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조론연구
조론오가해
(세트/전6권)
장경각

올해의 불서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2022년 (19회)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
민족사


2021년 (18회)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년 (17회)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운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년 (16회)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조계종출판사


2018년 (15회)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아시아총서25)
산지니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

50돌 한국불교학회, 불교학 미래 조명 국제대회 연다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서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 주제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사)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가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에서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 새로운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3년 7월 7일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창립한 한국불교학회는 최초의 불교학 전문 학술단체로, 창립 이후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해왔다. 창립 당시 홍정식 교수가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이운허 · 조명기 · 김동화 · 장원규 · 최범술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학회지 〈한국불교학〉은 1975년 창간된 이래 최근 100집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불교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춘 · 추계 학술대회, 춘 · 추계 워크숍을 통해 불교학술 담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학 대중화를 위한 강좌도 개설 · 운영하고 있다.

창립 후 반세기 동안 한국 불교학계를 이끌어온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하는 창립 50주년 학술대회는 한국불교 연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세계 불교 연구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해외 석학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인도불교 전문가인 폴 해리슨(Paul Harrison)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무착부터 함허득통까지-〈금강반야바라밀경〉의 주석 전통에 관한 고찰'을, 린챈궈(林鎭國) 대만 정치대학 철학과 명예교수는 '공성과 카르마의 세속주의'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유식학 석학인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 일본 와세다대 문학부 교수는 '선정에 있어서 심상관의 고찰: 아뢰야식설의 관점으로'를, 모로 시게키(師茂樹) 일본 하나노조대 문학부 교수는 '대화의 철학: 교상판석과 불교논리학의 현대적 의의'를, 모리야 토모에(守屋友江) 일본 남잔대학 남잔종교연구소장은 '국경을 초월한 불교사에 대해-동아시아와 북미에 걸친 불교와 이민'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불교학회를 이끈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와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평래 명예교수는 '한국불교학회의 반세기 회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김용표 명예교수는 '종교불학의 학문적 성격과 해석학적 과제-문명전환기의 불교연구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을 각각 기조강연한다.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다채로운 주제의 학술 논의들이 이뤄진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유식불교 △불교인식론 △동아시아불교 △인도철학 △불교와 마음철학 △불교와 문화예술 △현대사회 윤리와 계율 △한국불교학의 나아갈 방향 등 9개 분과에서 44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불교학회는 10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이평래, 김용표 명예교수 기조강연서
한국불교학 연구 진단, 방향성 제시
폴 해리슨 등 세계 석학들 초청강연
9개 분과 44명 학자들 연구논문 발표
"문명전환기 韓불교학 역할 모색할 것"

학술대회에 앞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앞장선 故윤용숙(실상화) 보덕학회 설립자와 김영태(제10~12대 학회장) · 권기종(제15대 학회장) · 김선근(제18대 학회장) · 김용표(제19~20대 학회장) · 권탄준(제21대 학회장) · 성운 스님(제22대 학회장) · 혜거 스님(한국불교학회 명예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며, 자현 스님(월정사)과 김영미 부산대 교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제3회 탄허학술상 시상식과 봉은사 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 환영 리셉션 등도 진행된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지금 세계는 뷰카(VUCA)로 특징되는 급변하고(Volatility), 불확실하고(Uncertainty), 복잡하며(Complexity), 모호한(Ambiguity) 문명의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조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미래를 통찰하는 비전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이 같은 문명전환기에 불교학이, 불교교단이, 불교신자가, 불교학자들이 모색해야 할 인간의 가치와 정신, 윤리, 사상의 향방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 창립 50주년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에 불교가 나아갈 방향과 시대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모색하며 세계 저명한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각자의 연구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우리 한국불교학이 문명의 신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함께 고찰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평래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집행위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중심이 돼 1973년 출범한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성장했다"고 자부하며 "이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 조류 속에서 한국불교의 지향점을 살펴봐야할 시기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물 '청룡사 비로자나괘불도' 통도사 나들이

통도사 성보박물관, 내년 4월 14일까지 전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개산대재 1378주년을 기념하며 통도사성보박물관 1층 괘불전에서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를 전시한다. 전시기간은 10월 2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하단의 화기를 통해 1806년 조성된 작품으로 밝혀졌으며, 총 5명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했다. 화면의 세로 길이가 5m로 현존하는 괘불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 속하며, 너비 약 43cm 가량의 삼베 8매를 이어 화폭을 마련했다.

화면에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석가모니불을 입상으로 채워 그렸는데, 지면으로부터는 구름이 수직으로 피어오르고 천공에도 색색의 구름이 횡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듯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 지권인을 결한 모습이 독특한데, 오른손으로 감싸 쥔 왼손의 두 손가락 끝이 보이게 표현하였다. 양 손목에는 원형의 느슨한 붉은색 팔찌를 하고 있는 점도 색다르다. 높이 솟은 육계(肉髻)의 정상 계주(髻珠)로부터 두 줄기의 상서로운 기운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양쪽의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역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중앙의 비로자나불보다 반 발짝 앞에 선 것으로 배치하였다. 보관을 쓰고 설법인을 취한 노사나불의 모습은 석가모니불이 정각(正覺)을 이루었을 때 노사나불로 나투시어 〈화엄경〉의 내용을 처음으로 천신과 보살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다섯 비구에게 처음 전할 때는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설하여, 각 근기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물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이래 매년 2회에 걸쳐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개산대재에 맞춰 괘불을 헌괘하여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많은 불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박물관,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층 기획전시관서 30여점 전시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이 10월 24일 박물관 내 2층 기획전시관에서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을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 신축 개관 이후 첫 번째 초대전이며 한국 불교미술 전통계승과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작품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사자상 · 코끼리상'(목재)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의 작품 '국가무형문화재 80호 자수장'(견본채색),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불화장 김종섭의 '옴 오백나한도'(견본. 선화)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동국문화예술회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미술 전공 동문 모임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 청원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정병국 교수, 조해종 교수, 최무상 교수 등 대표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최무상 작가의 '약사여래불'.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환응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불교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획전시관을 마련했다"며 "첫 번째 초대전을 한국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있는 동국문화예술회전으로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11월 7일부터 '한국민화불화지도자협회전'을 진행한다. 한국민화불화지도자협회는 부산지역의 불교미술과 민화를 연구 창작하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단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주와 육효를
동시에 배우는 지름길

四柱와 六爻十八問答
사 주 육 효 십 팔 문 답

○ 사주와 육효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초 암기 사항만 암기하고 읽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사주는 120개, 육효 십팔문답은 12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효는 사주에서 풀지 못하는 승진, 합격, 매매, 송사, 재물운, 사업운, 혼인점, 택일, 이사, 개업방향, 이사방향, 한해의 길흉월과 한달의 길일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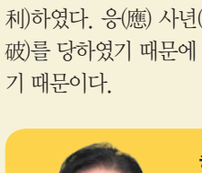
김서경 지음
50,000원/지식과 감성

– 육효 해설 예시문(39p)

風天小畜 一 世 6.動 水天需
풍천소축 수천수

兄 卯 木 卯묘년
文 子 亥해월
生 破 孫 巳 丙병인일 生 占점
財 未 日 應
財 辰 子자하년
兄 寅 脫탈
文 子 世 難난

단왈 이 괘는 자손이 어려움에서 어느 때 벗어날 것인가를 문의한 점인데 자손은 손(孫)이 용신(用神)이라. 오효사화(五爻巳火) 손(孫)이 위(爲) 용신(用神)인데 월건해수(月建亥水)가 충(沖)하여 월파(月破)를 당하여 불리하고 일진인목(日辰寅木)에 생을 받아 길하다. 연인데 육효묘목(六爻卯木) 원신(原神)이 동(動)하여 용신사화(用神巳火)를 생하고 있어 이는 이생일파(二生一破)가 되어 용신(用神)이 왕하여 성사가 되므로 어려움에서 곧 풀릴 것이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인가 답 왈 금년(今年)은 묘년(卯年)이니 사년(巳年)에 회복(回復)할 것이라 하였더니 과연 사년(巳年)에 대획리(大獲利)하였다. 응(應) 사년(巳年)은 용신사화(用神巳火)가 월파(月破)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년(巳年)은 파(破)를 메우는 년(年)이기 때문이다.



송암(松岩) 김서경(金抒儆)
1951년 생으로 1970년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에 있는 장육사에서 수행하였다. 1981년 역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자료수집과 〈실전사주〉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2년 〈실전사주〉 출간, 2023년 〈사주와 육효십팔문답〉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 사주 해설 예시문(382p)

58년(음) 3월 7일 사(巳)시 남자

乙	壬	丙	戊
巳	申	辰	戌
54	44	34	24	14	4
壬	辛	庚	己	戊	丁
戌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는 임수일주(壬水日柱)가 춘계진월(春季辰月)에 출생하여 실시(失時)하고 진중무토(辰中戊土)와 을목(乙木)이 투출(透出)하여 어느 오행(五行)으로 격(格)을 잡느냐의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날짜상으로 보아 진중(辰中)에는 을목(乙木)이 사령(司令)하므로 시상을목(時上乙木) 상관(傷官)으로 격(格)을 잡는다. 그러므로 상관격(傷官格)이며 사주에 재살(財殺)이 태왕(太旺)하다. 다행히 임수일주는 자좌신금(自坐申金)에 장생(長生)하여 종(從)하지 않으며 살인상생(殺印相生)으로 금인수(金印綬)가 용신(用神)이며 수비견겁(水比肩劫)은 희신(喜神)이 된다. 이 사주는 남자(男子)의 사주로서 외국어(外國語)에 능통(能通)하여 국제상사(國際商社)에 근무(勤務)하다가 44세 신유대운(申酉大運)이 잘 들어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높은 직위(職位)에 승진한 사주다.

– 사주 해설 예시문(383p)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
❷ 질병(疾病): 냉(冷), 신장(腎臟), 방광(膀胱), 치질(痔疾), 비색증(鼻塞症)
❸ 남녀성격: (남) 털털한 성격, 원만하다, 활발하다, 지혜롭다, 포용력, 만인의 신망, 고집 대단, 박력 있다, 영리하다, 일독십지, 처 덕 있다
(여) 남자 같은 시원한 성격, 새것을 좋아함, 영리하다, 부궁불미, 정부, 예능, 문학에 소질 있다, 친모봉양

◑ 세운 · 질병 · 남녀성격의 해설(歲運 · 疾病 · 男女性格의 解說)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원명사주(源命四柱)에 재살(財殺)이 왕(旺)한데 세운에서 재(財)나 관살운(官殺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손재수나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관재, 수술, 자연 재앙**은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인목(寅木)은 일지신금(日支申金)과 인신충(寅申沖)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지충운(日支沖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수술이나 자연 재앙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주(日柱)를 극(剋)하는 운(運)이 들어오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불화가 많이 생긴다.**

■ 판매처 010-3341-4867 ■ 값 50,000원 ■ 국민은행 442802-01-177578 (예금주 김성민)
입금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음돌봄 치유 늘봄

*늘봄 : 늘 바라보고 늘 돌보면
마음은 늘 봄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산하 불교상담심리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마음돌봄 치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23년 마음돌봄 치유사업 “늘봄”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심화된 전 국민의 마음치유 필요
- 명상과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의료, 복지, 돌봄,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의 마음돌봄, 나아가 자살예방에 기여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1월**
- 사업내용 : “늘봄” 명상프로그램
  - 불교계 전문 분야인 명상을 활용하여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운영
    마음돌봄이 필요한 곳에 불교명상지도사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해소
- 사업대상 : 전국의 복지, 돌봄, 의료,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 정서적 취약계층(자살유가족) 포함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총 4회기 프로그램

회 기	프로그램명	제 목	목 표
1회기	참여하기	지금멈춤	멈추고 참여하기
2회기	깨어있기	온몸관찰	자각과 수용으로 깨어나기
3회기	나눔하기	돌봄나눔	돌봄으로 나눔하기
4회기	무르익기	성장확인	성장으로 무르익기

참여기관 문의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 (☎ 02-737-7378, jabi7378@naver.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8~10/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돈황본육조단경(4본대조/정본역주)	조영미,최연식,김종욱,김천학,박인석 역주	운주사
2	미얀마아라한의수행:9위빠사나선사들의법문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아비담마길라잡이(2)아비담맛타상가하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붓다의가르침과팔정도(개정판)	월폴라라훌라/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6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7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8	8정도수행체계(팔정도수행체계)오리지널붓다수행기술	붓다빠라	SATI PRESS
9	살아가는모든순간을기적으로바꾸는틱낫한명상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10	중의학이론과도가역경:인체는작은우주다	남회근	마하연

책세상

文人스님이 전하는 따뜻한 힐링 잠언 108편



보지 못하는것을 본다는것
주경 스님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8000원

7년 만에 내놓은 주경 스님 신간
평소 사유하고 천착한 글들 묶어
짧으면서 편안한 메시지들 '눈길'
"욱, 확 말고 차라리 푹 주무세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주경 스님은…동국대를 졸업하고 예산 수덕사로 출가,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1년여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을 만행하고 서산 부석사 주지를 지냈다. 2002년 초대 사무국장으로 최초로 템플스테이 사업을 시작했고 조계종 총무국장, 기획실장, 역삼청소년수련관장, 불교신문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수덕사불교대학장, 불교방송 이사, 중앙승가대학 이사 등을 소임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참상이 연일 뉴스를 타고 전해진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누적된 분노와 증오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모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10월 15일 열린 자신의 신간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종식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면서 "이젠 두 번째 독화살을 맞으면 안 된다"고 했다.

"부처님 경전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게 되면 놀라고 화가 나고,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이 원망과 증오를 키우면 안 됩니다. 바로 일어난 분노는 어쩔 수 없지만, 이를 확대시키면 나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일이 됩니다. 증오로 얼룩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이뤄진 즉문즉설에 주경 스님은 평소 자신이 가진 사유의 결과물들을 구두로 풀어냈다. 어느 문답은 위트로 웃음을 짓게 했고, 어느 문답에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되새기게 했다.

주경 스님의 신간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평소 스님이 가진 사유의 결과물들이 잠언의 형식을 빌려 모습을 이뤄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책은 불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눈(五眼)을 이야기하며 시작한다. 이 다섯가지 눈은 한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시각인 육안(肉眼), 미래는 물론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천안(天眼), 현상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 혜안(慧眼), 걸림으로부터 벗어난 법안(法眼),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의 불안(佛眼)이다.

본래 인간에게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눈이 갖추어져 있는데 마음이 흐려지는 수많은 미혹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욕망과 욕심, 시기와 질투, 나의 이기심과 조급함 때문에 내면의 진실과 실체를 보지 못하고 점점 눈이 닫히고 만다. 종이 한 장만 가려져 있어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즉물적인 눈으로 살아감을 안타까워하며 주경 스님은 맑고 순수한 눈을 되찾고 지켜나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쉽다. 본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 오래 지켜보는 것. 사랑을 전제로 한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집착과 차별을 떠난 눈,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은 나의 '기다림'과 '쉼'에서 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어들은 대부분 '느림'과 '휴식' '비워냄' '사랑'들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눈'은 사랑을 전제로 한 오랜 기다림과 마음의 여유에서 온다. '쉼'은 우리를 너그러워지게 만든다. 뒤를 돌아보고 그 뒤와 앞을 내어주는 겨를이 있는 삶,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사는 삶이며 말하지 않아도 침묵의 공간이 생겨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며 느끼는 분노와 증오, 차별들에 대한 지침들도 전한다. 주경 스님은 '욱, 확, 팍하지 마세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팍'을 하지 말라고 한다. 스님은 '팍'은 그릇이 깨질 때 나는 소리로 애써 마련한 것이 못 쓰게 되는 소리라고 경계한다. 그럼 어떻게 끌어 오르는 분노와 화를 잠재울까. 차라리 스님은 '잠을 자라'고 한다. 잠을 자고 난 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욱' 할 때 꿀꺽 삼키면 수행이 잘된다"고도 전했다.

주경 스님이 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이다. 스님이 전하는 108가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랑을 향해 가고 있다. 놓지 못하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버림, 비움, 기다림, 두려움조차도 사랑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모든 물체와 물성에는 생겨남이 있고 존재해야 하는 까닭과 근거가 있고 나름 아픔과 슬픔, 고독함과 고난도 있다.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한 것
소외된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굳이, 애써, 찾아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진정한 어른의 시선이고 말이며 성숙함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나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후원해준 부모님처럼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탁해준 스승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끈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 #004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것**

우리의 마음 그릇에는 세월 따라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용서, 고집과 관용이 들어서고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달리 세상의 풍파로 인해 마음이 채워지고 다시 비워지는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고통도 많이 따릅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비우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074 비워내다 보면 그릇에 아름다움이 담깁니다.

놓을 수 있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설렘과 희망이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수많은 부정과 번민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바람이 닿는 살 위에 날개가 돋아날 것입니다.

– #083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승들이 전한 위빠사나 요체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
강종미 편역
해장각 / 1만6000원

불교가 한 나라에서 번성하기 위해선 왜곡되지 않은 부처님 말씀과 이를 따라 정진해 깨달음을 얻어 범부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자가 필수적이다. 테라와다불교의 맥을 이은 미얀마가 불교국가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면면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스승들의 노력 덕분이다.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은 20세기 전후 미얀마 승려로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는 최고의 스승 9명의 법문을 모았다. 편역은 1996년 미얀마로 건너가 마하시 · 쉐우민 · 때인구 · 모곡 센터 등에서 직접 위빠사나를 수행하고 마하시 마하간다용, 만달레이 빠리얏띠 사사나 대학 등에서 아비담마와 빠알리 삼장을 수학한 강종미 박사가 맡았다. 이번 책은 그동안 역자가 접한 큰스님들의 법문 중 위빠사나 수행에 요긴한 법문들만 추려 모은 것이다.

위빠사나(vipassanā)의 위(vi)는 '특별하게', 빠사나(passanā)는 '본다'는 뜻이다.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해 무상 · 고 · 무아를 아는 수행법으로, 초기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디 사야도의 법통 제자 위빠사나빠라구 사야찌(1891~1952)는 위빠사나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성품(실재)만을 보게 되면 안심할 수 없고 두려워진다. 위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끝없이 소멸하고 사라지는 성품에는 사람, 중생, 나라고 여길 만큼 견고한 본체가 없다. 물질 더미를 들여다보면 미세한 입자뿐이다. '액체, 고체, 물질, 형상이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성품뿐이구나! 이것 역시 제 일을 마치면 소멸되어 흔적조차 없어지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알 때 진정한 믿음이 자라난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쉐우민 사야도(1913~2002) 역시 '생멸'을 항상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알아차릴 대상(물질)과 알아차리는 정신을 의지처로 일어날 뿐 어디에도 '나'는 없다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에 일어나는 실재를 그대로 알 때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이처럼 위대한 수행자들의 법문이지만 위빠사나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수행법은 아니다. 책에 소개된 순룬 사야도(1877~1952)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마흔이 넘도록 글을 읽지 못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수식관을 배워 수행하면서 마흔 셋의 나이에 출가했다. 위빠사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9명의 스승들의 이야기에서 서로 통하는 핵심을 찾아보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백운 · 태고 · 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8 여기 있었군 1



▶한줄 요약
마침내 이 기자 일행은 이석원의 행방을 알아내고 찾아간다. 현지에서 이석원은 아디카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마침내 이석원의 행방이…그의 이름은 '아디카야'

-맞네!

원주 스님이 적어 준 주소는 뉴델리역 부근이었다. 번지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정말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역으로 통하는 길로 들어서서야 심 작가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왜 기대되는가?

심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봐. 어째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무서운 건 자네의 환상일세.

-환상이라니?

-그에게는 그만큼 절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 자네 혹시 이석원인가 뭔가 하는 자가 난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예사롭지는 않아.

-허허 정말 사람 미쳐가는 거 시간문제라니까. 왜 이러나? 정신 차려. 그 사람은 그림에 미쳐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아니 그것도 모자라 부처의 모습을 칼질하면서 거리의 방랑자가 되어 버린 놈이야.

-글쎄. 혹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미쳐가는군.

-이 사람아,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소위 기자라는 사람이 왜 그래?

-어쩐지 화가 나서 말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 이유가 뭔데?

-이 사람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냐.

넷이 뉴델리역으로 접어들었다. 심기가 편치 않은지 오오스마 기자나 심 작가는 더 말이 없었다.

원주스님이 준 주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집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내가 구시렁거렸다.

-보나 마나 번지도 없는 판잣집일 테지.

그렇게 말하고 동의를 구하듯 심 작가가 나를 쳐다보았다.

-지안 금어의 솜씨가 좋긴 좋았던 모양입니다. 집을 얻었다니.

내 말에 심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여기가 한국만 하겠어요. 그런 집이라면 몇 푼 가지 않을 집일 겁니다. 더욱이나 셋집이니. 이곳으로 들어와 절밥만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 공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요.

-일단 가봅시다.

내가 말했다.

이곳저곳 주소를 물으며 다니다가 어느 허술한 술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먼저 문을 밀고 들어섰다. 고깃국 찌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름때가 절은 탁자를 닦다 말고 주인이지 싶은 뚱뚱한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시오?

-여기가 뉴델리 모리 3가 64번지가 맞습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인사를 꾸벅하고는 물었다.

-여기는 62번지요.

-그럼 64번지는 어디쯤 됩니까?

-글쎄 여기가 62번지니까 이 어디쯤 되것지요. 그런데 왜 그러오?

-혹시 이 부근에 한국 사람 아니, 아니 아디카야란 사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디카야요?

-네.

-아디카야? 글쎄요? 주위 사람이라면 내가 알텐데….

-기억에 없나요?

-글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튼 64번지를 찾아보자고.

오오스마 기자가 술집을 나오며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술집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새를 파는 집' 이라는 간판이 붙은 집에서 오오스마 기자가 삼십대의 새집 주인에게 주소를 물었다.

-여긴 60번지요.

새집 주인의 말을 들은 오오스마 기자가 술집에서 두 번째 집인 허술한 슬레이트집을 바라보았다.

-바로 저 집인 것 같은데…….

술집을 지나 허술한 슬레이트집 앞으로 다가갔다.

-술집이 64번지라면 이 집이 63번지 그리고 이 집이 맞지.

나는 오오스마 기자의 어깨 너머로 번지가 어디 낙서처럼 쓰여 있을까 하고 살폈는데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낡고 엎드린 폐가나 다름없는 집이었다. 집 앞엔 쓰레기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영화 포스터가 너덜너덜 나붙어 있었다. 낡은 현관문 사이사이에 흙먼지가 새까맣게 끼어있었다. 한마디로 사람 사는 집 같아 보이지 않았다.

오오스마 기자가 먼저 문을 흔들었다.

-그러면 그렇지. 셋집이 오죽하려고.

심 작가가 혀를 찼다.

-이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오오스마 기자가 되받았다.

-계십니까?

오오스마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다시 오오스마 기자가 문을 흔들며 주인을 찾았다.

잠시 후 집안에서는 기척이 없고 옆집에서 자다 깨었는지 부스스한 모습의 여자 하나가 나왔다.

-누굴 찾소?

-여기 사는 사람을 좀 찾는데요.

심 작가가 대답했다.

-누군데 그 집 사람을 찾소?

-아, 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삽화 · 김상규

역시 심 작가가 대답했다.

관이라는 말에 여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제 나라 사람은 아닌데 관에서 나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집 사람 나간 지 오래됐소. 지금 빈집이오.

잠시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난감한 듯이 오오스마 기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안 되겠는지 여인에게 물었다.

-혹시 이 집에 아디카야라는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오오스마 기자를 올려다보았다.

-아디카야? 아, 그 한국 놈. 그 사람을 왜 찾소?

아! 당신들도 한국 사람? 하는 표정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물살처럼 스쳤다.

-한국 놈? 아십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다시 물었다.

-알다마다요.

-그 사람 한국 이름 이석원 아닙니까?

-맞소. 여기서는 아디카야라고 부르지. 그 사람 여기 살고 있지 않소. 절에 살잖소. 간 지가 언젠데….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 아내 아니오.

-아내?

-아디카야란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찾아왔느냐는 듯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아내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보자, 이제 스무 살이나 됐나.

-그럼 자식은요?

송 서화가가 성질 급하게 짚었다.

-그건 모르겠소. 언젠가 아디카야란 그 사람이 아내라며 데려다 놓았으니까.

-이 집 세 들어 사는 사람 절에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본시 얀카 네가 살았는데 아들과 아비가 사고로 죽었잖소. 그 어미가 혼자 살다가 못 살겠다며 요양원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집을 그놈에게 세놓은 모양이오. 그놈이 아디카야였소. 그자가 어느 날인가 아내라며 데려다 놓았단 말이오.

-그럼 그 여자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지. 그런 셈이지.

-그런데 집을 비우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아디카야란 사람은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그래요?

오오스마 기자가 되뇌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잠시 후 여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럼 지금 그 여자 어딨는지 모릅니까?

-근데 댁들은 누구요? 관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이 여인의 얼굴에 흘렀다.

-아, 한국!

안다는 듯이 여자가 말에 힘을 주었다.

-한국 아십니까?

-많이 와. 쪽바리들. 짱게들. 꼬레안….

-꼬레안?

송 서화가가 말이 이상한지 되뇌었다.

-한국 사람을 부르는 그들만의 은어입니다. 짜다, 너절하다는 뜻으로 말을 비튼 것입니다.

-아이고 한국 사람들 이곳으로 여행과 얼마나 짜고 너절하게 굴었으면…. 이웃 나라로 돈다발 들고 섹스여행 잘만 가드라만…. 하기야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지. 영혼의 나라? 아이고 영혼도 좋지만, 너무 지저분하다. 하기야 본토인들보다 여행객들이 더 득실대는 곳이니.

-왜 무슨 사고라도 난 거요?

송 서화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물었다.

-사고는 아니고 뭐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요.

나의 말에 여인이 머리를 해해 내저었다.

-그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네?

오오스마 기자가 되물었다.

-그놈이 그 여자를 팽개쳤다는 말이오. 죽일 놈이야.

-팽개치다니요?

-집을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자 제 아내를 저노므 사창가에다 팔아먹지 않았겠소.

-아내를 팔아요? 그 여자 한국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한국 여자?

여인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야. 이곳 사람이야. 재주도 좋지. 아주 제 나라처럼 활개치고 돌아다니니. 내 보다보다 그런 금수는 처음 보았소.

이곳이 지옥이긴 하지만 본토인도 아니고 이곳 여인을 아내로 얻어 사창가에 팔다니?

-그 사창가가 어딥니까?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물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소. 얼마 전에 그놈이 찾아왔더구먼. 이 집에서 좀 살았나? 놈은 눈만 뜨면 밖으로 나돌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그놈이 사라지고 난 뒤 하루는 시장 갔다 오다가 그놈 아내를 저 시장통 술집에서 만났지 않았겄소.

-그런데요?

-왜 그년이 거기 있는지 술집 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제 남편이 팔아먹고 갔다는 거요.

-그럼 그 여자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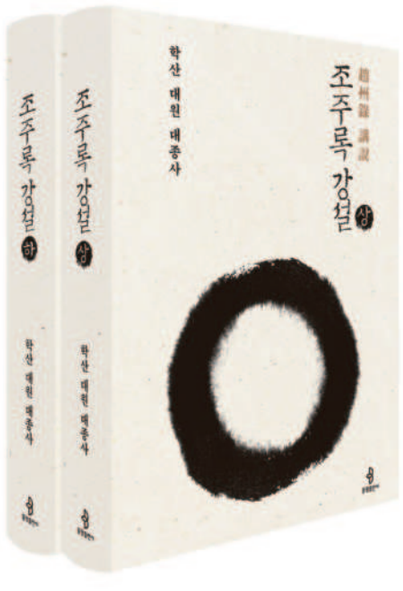
-시오레라고 불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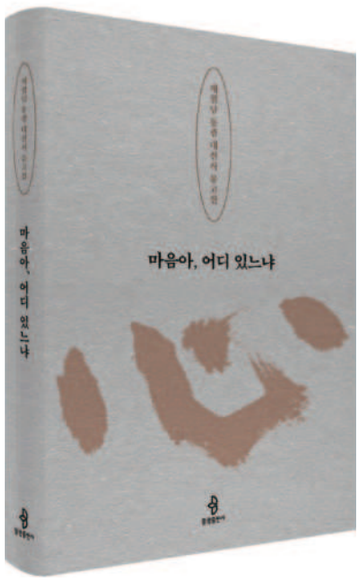
-시오레?

뇌까리며 생각해보니 한국 여자 이름이 아니었다.

-그럼 지금도 거기 있나요?

내가 이어 물었다. 〈계속〉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의 강설로 만나는
간화선(看話禪)의 진수, 조주록(趙州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장 6년간의 강설을 하나로 엮은
조주선(趙州禪)의 진미(珍味)!
조주 선사의 탁월한 선기를 보여주며, 간화선을 대표하는 공안으로 자리한 『조주록』!
학산 대원 대종사의 착어와 송을 더해 고준한 선(禪)의 세계를 펼친 단 한 권의 책!

趙州錄 講說
조주록 강설 상하
학산 대원
대종사
양장본 | 상 696쪽, 하 816쪽
각 60,000원

각성 · 무비 스님과 함께 '탄허 3걸'로 불리운
우리 불교 대강백, 제월 통광 스님의
삶의 끝자락에서 꾹꾹 눌러 쓴 깨달음의 문장!
입적 이후 10년,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는
제월 통광 스님의 마지막 당부!
생명에 대한 절체절명의 도전 속에서도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한 선사의 자전적 기록!
비로소 대중을 만나다!

마음아, 어디 있느냐
제월 통광
대선사
유고집
양장본 | 312쪽
2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20 참선명상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줄 요약
급변하는 세상에서 마음 평안과 지혜 밝히려면 불교의 중도연기 세계관 공부해 바른 안목 세우고 참선 명상해서 마음 밝혀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참선 명상 시작하는 '용기'가 중요

오늘은 현대 재가 생활인들이 참선 명상을 바르고 쉽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왜 불교 명상을 해야 하는가?

현대인은 지식 정보화시대에 경쟁 본위로 살며 늘 초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20세기 일제 식민지 강점기와 민족 분단과 전쟁, 기아와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를 거치며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 상황에 직면하여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통해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려준 불교를 공부하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로 가는 불교의 지혜는 경전을 공부하여 이해한다고 삶이 바뀌고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불교 경전과 선어록을 공부하여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서 지혜를 밝혀야 한다.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깨친 중도연기의 세계관은 현대 물리학이 증명한 과학과도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아인슈타인 같은 현대 물리학의 대가도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존재를 부정하고 불교야말로 '우주적인 종교'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불교의 진리는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과도 조화를 이루며 무한한 지혜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불교의 지혜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을 보고 이해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서는 경전을 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간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믿음과 더불어 자기 마음에서 중도를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지혜가 난다. 물론 부처님처럼 깨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지만,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불교의 정견을 세우고 수행을 하여 마음을 닦으면 노력한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진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밝히려면 불교의 중도연기 세계관을 공부하여 바른 안목을 세우고 참선 명상을 해서 마음을 밝혀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참선 명상은 어떤 이익을 주는가?

초조 불안과 스트레스에 찌들어 괴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불교의 참선 명상을 하면 마음의 평안과 밝음을 체험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불교의 참선 명상은 깊은 산중에서 도인들이 하는 신비로운 체험의 세계로 은밀하게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참선 명상이 서양에 전파되어 현대 과학자들 중심으로 과학을 통하여 참선 명상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서 평안과 행복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기운이 난다. 이러한 과학적인 효능에 힘입어 지금 서양에서는 명상이 요가와 함께 신심을 치유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화두를 받아 참선 명상에 입문하는 불자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참선의 힘으로 애플을 창업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의 참선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첨단 기업 임직원들에게 참선 명상붐이 크게 일어났고, 이러한 흐름은 한국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삼성, LG, SK 등에서도 명상을 보급하여 임직원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스트레스가 많은 이들도 명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선 명상 서적이나 인터넷 동영상 보기

이처럼 좋은 참선 명상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참선 명상에 관심이 있고 할 뜻이 있는 분들은 참선 명상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 보는 경우가 많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영상을 아무 것이나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책은 조계종단 차원에서 펴낸 〈간화선 입문〉이나 〈간화선〉이 좋다. 화두 참선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책을 추천한다. 그 밖에 참선 명상 관련 서적은 저자가 조계종 스님이거나 스님 문하에서 참선을 배워서 바른 안목과 체험을 한 분이 지은 책을 보는 것이 좋다.

> 급변하는 세상 마음 밝힘 필요
> 중도 공부로 정견 세움이 먼저
> 삿된 가르침 구분 안목 필요해
> 치유 명상서 깨달음 명상 발전

일반 명상 서적의 경우는 좀 다르다. 지금 서양에서 명상 붐이 크게 일어나 명상 서적이 워낙 많이 번역 소개되고 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보기보다는 주변에 참선 명상을 오랫동안 한 분이나 사회적으로 신뢰할만한 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보는 것이 좋다. 아니면 현대불교신문이나 불교신문과 같은 불교계 신문 서평코너에서 소개하는 명상 서적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참선 명상에 관한 동영상도 많이 접한다. 불교방송이나 불교TV, 불교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대체로 신뢰할만하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다만, 개인이 제공하는 동영상 중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사로운 견해로 현혹하는 내용도 적지 않으니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참선 명상을 시작하는 분은 먼저 불교의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좋다. 정견이 서면 바른 가르침과 삿된 가르침을 구분하는 안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이나 명상단체에서 참선명상 시작하기

참선 명상을 시작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절이나 참선명상 단체를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다. 교계 신문, 방송에서 참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절이나 단체의 기사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된다.

코로나 이후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참선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절이나 명상단체도 늘어났다. 마음만 내면 공부하기가 쉬운 시대다. 특히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공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절약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절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명상 프로그램 참여 회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란한 과장 광고를 하고 비싼 회비를 받는다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종교에도 사이비가 있듯이 참선 명상하는 절이나 단체에도 사이비들이 있다. 이들은 온갖 달콤하고 유려한 말로 참선 명상 초보자를 유혹하여 지갑을 열게 한다. 세간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명상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회비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린다. 이것은 장사를 목적으로 참선 명상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싼 회비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

참선 명상의 큰 흐름을 알고 시작하기

지금 절이나 명상단체에서 운영하는 참선 명상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조계종 절을 중심으로는 전통 참선 프로그램이 있다. 주로는 화두 참선하는 법을 안내하고 화두 없이 경전과 선어록 공부를 통해서 좌선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하나는 남방불교 전통의 위빠사나 명상법이다. 주로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과 몸을 관찰하여 지혜와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법이다. 자비명상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 전통 화두 참선이나 남방불교 전통의 위빠사나 자비 명상 다 좋다. 불교의 중도, 팔정도, 사성제를 기반으로 하는 참선 명상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계발하는 훌륭한 참선 명상법이다. 자기 인연에 맞게 선택해서 공부하면 좋다.

요즘은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반갑고 좋은 일이다. 다만,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개설하는 명상 프로그램은 그 취지와 목적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스트레스 감소와 치유를 위한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이런 치유 명상도 필요하고 좋다.

하지만, 이런 치유 명상은 심신의 치유와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불교의 깨달음 명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즉 깨달음의 참선 명상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지향한다면, 치유 명상은 일시적인 치유와 행복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참선 명상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어떤 명상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 치유 명상으로 시작해서 깨달음 명상으로 가도 좋고, 깨달음 명상으로 바로 시작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참선 명상을 시작하려는 용기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고준환

- 경기 화성 비봉 자안리 518(1942년) 출생
- 청룡초교, 용산중 · 고교 졸업
- 서울대 법대 법학과 졸업(1965)
-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 발기(1963)
- 화엄학연구원 연구위원(원장 김탄허 스님)
-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1965~1967)
- 국민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박사)(1979~1984)
- 동아일보사 기자, 동아방송 PD(1967~1975)
- 동아방송 필화건으로 투옥(1973)
- 동아일보사 기자노조 창립 발기(1974)
- 자유언론실천선언(1974)
- 동아일보사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1975~)
-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 경남대 교수, 경기대 법정대학장, 경기대 교수(1981~2009)
-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환교수(1992~1994)
- 신선도 대표, 황우석교수살리기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국사찾기협의회 3대 회장
-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 회장
-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회장(1988)
- 하니로포럼 선정회장
- 불승종 보문현 법사(1981~2009)
- 본각선교원 원장(2011~)
- 민주화운동 유공자(2007. 7. 12. 제2824호)-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대통령 근정 포장 제84389호(국민교육발전 유공)-2009. 2. 28. 대통령 이명박
- 대한조선공사 계약과장, 대한상사중재원 조사 · 중재과장
- 충북대 강사, 경기대교수협의회 부회장
- 경인일보 객원 논설위원 · 수원 시사편찬 집필위원
- 사법시험 등 출제위원, 4월혁명회 연구위원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부회장
- TM 플라잉코스 수료, 아바타코스 위자드
- 대한상사법학회 · 국제거래법학회 이사
- 2002년 개천절 평양단군릉민족제전 참여(한민족운동단체연합 대표)
- 캐나다 ICCA 침구 · 동양의사 자격증 획득

신명난 인류최고
한붉달문명 국사
한국 자주국통맥 확립!! 단군조선은 고씨조선!!



A5신판 양장본/ 697쪽/ 값 45,000원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神明)난 인류최고'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이룩한 "한밝달문명"이다. 왜 그런가? 우리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제일 찬란한 세계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밝달문명"의 우리 국사는 다른 말로 "환단국사(桓檀國史)"이다. 일찍이 환단고기, 부도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말한 대로 우리 민족사는 나반과 아만, 마고를 거쳐 환인 → 환웅 → 단군으로 이어졌고, 자주국통맥은 마고산성시대를 지나 환국 → 붉달국 → 고조선 → 고구려 등 열국시대로부터 오늘의 남북한 시대까지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고조선을 이은 북부여 건국이 실제로 고구려 건국인 바, 고달 해모수왕, 고진왕, 고법왕, 고무수왕, 고주몽왕으로 이어졌다. 광개토대왕비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준환 교수는 이러한 우리 역사 문헌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섭렵하여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기록해 처음으로 최고의 환단국사를 집필하였다. 이것은 우리 국사학계의 자랑이며,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국민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신국판 양장본/ 485쪽/
값 28,000원

고준환 지음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 깨어 있음

도서출판 교림
Tel. 02-733-3334

A5신판 양장본/ 484쪽/ 값 30,000원



아하광파 고준환 박사 자전적 에세이
별구름 나그네

- 통일기원법회 주관
-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합토제 거행
- 동아자유언론 실천 투쟁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회장

자유로운 평화창조자로서 절대진리를 추구하여 자유, 평등, 평화라는 하나의 평화세계를 추구하며 석가모니를 비롯한 인류의 성자, 도인들로서 배워 연야달다 같은 돈오견성 체험이 있었고, 애국애족과 인류애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삼가 후천상생시대에 대비하여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사 중심인 자주국사책을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 하나 되는 한국사(범우사)"를 비롯하여 10권을 출간한 바 그 마지막 책이 《신명난 인류최고 한붉달문명 국사》이다. 먼저 지금 여기 깨어있고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은혜롭게도 인연 있는 모든 사람과 중생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불 보살 신들께 우리의 조상님들과 나라를 열고 지켜 오신 순국선열들께 우선 고개를 숙인다. 초 · 중 · 고 · 대학시절 사회생활하는 동안 은사님, 동문, 직장동료,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기 그지없다. 교불련, 대불련의 임원, 회원님, 국사찾기협의회 역대 회장과 임원들, 민주통일복지 국민연합회 원님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유튜브방송 「고준환 교수 깨달음세계」「고준환 박사 신명난 우리 역사」 시청자들께도 감사드린다.

- 〈머리말〉 중에서

한누리미디어 083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40, 2층(구로동)
전화 / (02)379-4514 Fax / (02)379-4516 E-mail / hannury2003@daum.net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⑳ 양산 통도사 대웅전 불단



▶ 한줄 요약
통도사 대웅전 불단은 전적으로 공양예경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사례이다.

불상 없이 텅 비어 있는 불단의 원형

소나무로 만든 10m 넘는 대형 불단

통도사 대웅전은 가람의 상로전 영역에 있는 통도사의 중심 법당이다. 대웅전은 1645년에 중수한 건물로서 '사리각', '대법당'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건물의 동서남북 네 면에 편액을 하나씩 달고 있다. 동-대웅전, 남-금강계단, 서-대방광전, 북-적멸보궁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성소이자 수계 공간인 석조건축 금강계단과 유기적 일체를 이룬 독특한 성격의 법당이다.

대웅전은 일주문-천왕문-불이문에 이르는 가람의 중심축인 동서 축선에 3×3칸의 법당 건물을 세우고, 중심축에 수직인 남북 축선에 금강계단을 향한 3×2칸의 배향건축을 결합한 형태다. 즉 동향의 3×3칸 법당의 향우측에 3×2칸의 남향 배향시설을 덧붙인 건축이다. 그래서 동서축에서 바라보면 정면 5칸, 측면 3칸이고, 보조축인 남북 축선에서 보면 정면 3칸, 측면 5칸인 건물이 된다. 그러한 건축 구조에 의해 대웅전엔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지붕 용마루가 나타난다. 축이 직교하는 용마루 중앙에 범자 '옴'을 여섯 면에 새긴 청동 보주탑을 올려뒀다. 보주탑은 진리를 설하는 법의 집으로서의 법당을 상징한다. 또한 바라보는 방위에 따라 독특한 상부 지붕의 입면이 나타난다.

북측 적멸보궁 편액 방향을 제외한 동, 남, 서 세 측면의 정면에선 지붕의 용마루와 함께 목조건축의 측면에 생기는 합각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은 북측 금강계단의 부처님 진신사리에 헌공 올리는 공양예경단 시설로서 동서 방향으로 길게 배치했다.

대웅전 북측 2칸 전부 불단이 차지할 정도의 대형 불단이다. 대웅전 동서방향 길이가 불단의 가로 길이다. 그래서 불단의 길이가 10m를 넘는다. 금강계단에 진신사리를 봉안한 까닭에 불단 위에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단지 불단 높이의 북측 벽면에 가로로 긴 유리창을 내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향해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판이 텅 비어 있는 대형 불단의 원형을 보여준다. 불단은 통상 두 가지 기능성을 갖는다. 하나는 불상 봉안 시설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육법공양을 위한 공양예경단의 기능이다. 통도사 대웅전의 경우 전적으로 공양예경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사례이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는 대구 용연사 적멸보궁, 강원도 고성 건봉사 적멸보궁, 정선 정암사 적멸보궁 등에서도 불상을 모시지 않은 불단 형식을 볼 수 있다. 그 원형은 통도사 대웅전 불단이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은 하대, 중대, 상대의 삼단 형식을 갖춘 대형 불단이다. 길이 10.4m, 폭 2.5m, 높이 1.9m에 이른다. 불단 제작에 사용한 나무는 소나무이다.

후불벽을 세우지 않아 불단의 뒷면은 전체가 개방돼 있어 특별하다. 측면의 좁은 통로로 몸을 숙여 들어가 개방된 뒷면을 보면 불단 내부구조를 직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 뒷면에는 불단에 오르내릴 수 있는 목제 사다리도 설치돼 있다. 불단의 중심인 중대는 대개가 3단 형태이다. 하지만 통도사 대웅전 불단의 중단은 1단으로만 구성했다. 중단 위엔 천판

불단 제작연대와 제작자 기록 남겨
조성기록 등에 불단을 '탁자'로 호칭
청판에 180자 불단 조성기록 발견
중단에 기린, 인면어, 천마, 용 투조

을 얹었다. 하지만 불단에서 차지하는 중단의 크기 비중은 부각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하대와 상대는 각각 2단으로 구성했다. 하대는 기단부와 청판을 가설한 하단으로, 상대는 상단과 그 위에 보탁을 올려 2단을 이루게 했다. 상대의 상단과 보탁 두 곳 모두에는 두께 10cm에 이르는 천판을 올려 뒀다. 불단구조를 아래서부터 살펴보면 (하대) 기단-하단, (중대) 중단-중단천판, (상대) 상단-상단천판-보탁-보탁천판의 여덟 층위를 이룬다. 불단 높이 190cm 중에서 하대 높이는 76cm, 중대는 32cm, 상대는 82cm를 차지한다.

대목 상징 스님이 1646년에 제작

2021년 통도사 대웅전 불단 정밀조사 과정에 중단의 향우측 세 번째 청판 뒷면에서 불단 조성기록 묵서 180여 글자가 발견됐다.

묵서에 의하면 불단은 대웅전 중수를 마친 1645년 9월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1646년 2월 8일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불단 조성은 대화사 진희 비구의 주도하에 탁자 대목(卓子 大木)은 운수납자 상징 비구, 부목은 광현 비구, 화주는 대선사 각천 비구 등이 맡아 진행했다. 불단 조성연대와 조성 주체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불단에는 또 함풍 8년(1858년)에 새긴 320여 자의 〈탁자장식연기문(卓子粧飾緣起文)〉 금속판도 중대 천판 앞면 중앙에 붙어 있다. 금속판은 구리와 아연이 주성분인 구리판이다. 연기문은 호운과 도언이 쓴 문장으로 철물 시주, 수공(手工) 시주자 등을 밝히고 모든 중생의 성불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다. 그것은 불단을 '탁자(卓子)'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탁자'의 개념은 촛대, 향로의 배치와 꽃, 과일 공양 등 불단의 공양 의식단으로서의 실용 목적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불단을 '탁자'라고 기록한 사례는 대구 동화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대웅전 불단 묵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에서 구리 금속판 장식은 중대, 상대에 있는 세 천판에 두루 부착돼 있다. 중대 천판엔 7개, 상대 천판엔 6개, 보탁 천판엔 3개 장식했다. 새긴 문양은 꽃, 구름, 범자 등이다. 금속판의 범자 장엄은 정법계진언 '옴람'으로 청정한 마음을 상징한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 중단의 조형 모음(중단의 10칸 조형 중 8칸 조형을 짝맞춰 재구성함).



통도사 대웅전 불단 부분.



통도사 대웅전 불단에 부착한 금속판 장식과 조성기록.

불단의 하대는 굳건하고 힘이 있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이 가진 강한 개성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하단을 7칸으로 나누는 8개의 검은 족대가 인상적이다. 힘이 들어간 사자 앞발의 형세다. 상부의 하중을 받아내는 투박하고 억센 힘의 의지가 조형에 고스란히 담겼다. 하단 안쪽에 벽면처럼 길게 이어 붙인 두께 3.8cm 청판도 눈길을 끈다. 청판은 하단 안쪽 면에 시설해서 가림막 역할을 한다. 청판에 표현한 장엄형식도 조각이 아닌 평면회화다. 꽃과 넝쿨을 결합한 보상화를 그렸다. 하단의 상부엔 청판보다 작은 또 하나의 가림판을 시설했다. 12cm 높이의 가림판엔 휘장 문양의 장식띠를 그려 가림막의 기능성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높이 20cm에 이르는 기단부는 대단히 튼실한 느낌이다. 두텁고 묵직하다. 기단부엔 용을 조각했다. 기단에 새긴 용은 모두 8개체다. 족대의 8개 발이 내려진 곳마다 용을 새겨 배치했다. 용은 고부조로 입체감 있게 깊게 새겼다. 용의 입에서 좌우로 넝쿨이 뻗어 나간다. 넝쿨에는 생명 에너지가 담겼다. 이웃한 용의 입에서 나온 넝쿨끼리 팔짱 끼듯 서로를 칭칭 감았다. 연대의 힘으로 강력한 수호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불단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것은 하단 가림막에 채색한 넝쿨문과 상통한다. 조각과 평면회화가 일의적으로 통일돼 있다.

한 단의 중단에 완성도 높은 조형

통도사 불단의 중대는 한 단만으로 구성했다. 한 단을 10개의 칸으로 구획했다. 한 칸의 크기는 평균 가로 90cm, 세로 20cm이다. 조형은 5, 6번 칸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배치했다. 중대는 한 단에 지나지 않지만 각 칸의 청판에 베푼 조각은 감탄을 자아낸다. 조형 소재의 구성과 배치, 조각의 예술적 표현력, 색채 운용 등에서 완성도 높은 예술적 성취를 보여준다. 중단의 조형소재 구성을 살펴보면 1-10번: 사람 얼굴 가진 물고기(인면어)+기린, 2-9번: 용+기린, 3-8번: 인면어+ 천마, 4-7번: 용+ 기린, 5-6번: 수생생물(물고기, 개구리, 게, 거북이, 학 등) 등으로 구성하여 대칭의 구도로 배치했다. 중대의 모든 청판에는 꽃과 넝쿨을 결합한 보상화 조형을 바탕 조각으로 새겼다. 좌우에 배치한 기린, 인면어, 용, 천마 등은 모두 중앙을 향해 이동한다.

통도사 불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조형은 중단의 네 곳 청판 조형에 등장하는 인면어다. 인면어는 종종 아미타불께서 중생구제를 위해 나투시는 변화의 몸, 곧 변화신(變化身)으로서 '아미타어'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진사 안료의 붉은색이 기조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군청에서 풀어 낸 청색 몸을 가진 인면어 조형의 파격은 강렬한 인상을 안겨준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부처와 법의 자리인 중앙으로 향하는 청색 물고기의 스토리는 대단히 동화적이고 애니메이션 같은 판타지의 세계 그 자체다. 한국산사 불단 조형이 가진 특별한 미감은 이러한 신비주의와 초현실주의의 판타지에 기반한다. 찬찬히 살펴보면 서쪽에서 중앙으로 향하는 인면어는 머리 스타일과 생김으로 보아 여성성을 갖췄고, 동쪽에서 중앙으로 향하는 인면어는 남성성을 갖춰 엄숙함 속에서도 긴장을 푸는 해학과 재치를 발휘한다. 더구나 중앙으로 향하는 모든 기린, 인면어, 용, 천마들은 저마다의 몸통에, 때론 얼굴 앞에 금빛 씨방을 가진 주홍색 꽃을 달고 있다. 왜 활짝 핀 꽃을 장식하였을까? 상서로움과 기쁨의 길상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부처께서 설하시는 법문 자리로 가는 길, 환희지의 꽃이 저절로 피기 마련이다. 저 붉은 꽃은 진리와 자비의 감로로 향하는 환희의 꽃이다. 그래서 꽃이 활짝 피었다.

중단과 상단의 조형은 투조로 조각했다. 조형 위에 조형을 조각하고, 조형 아래에 또 조형을 새겼다. 조형이 깊고 심층적이며 서로 얽히고설켰다. 바느질처럼 조형의 선들이 누비고, 감치고, 공그르고, 뜨고, 휘갑친다. 선들이 꿈틀거림으로, 리듬감으로 살아있다. 그 속을 바람을 가르듯 기린이 달리고, 천마가 내달리고, 용이 휘몰아쳐 가고, 넝쿨의 선율따라 봉황은 몸을 눕혀 비상하고, 인면어는 유유히 미소 지으며 간다. 중앙엔 수중 생명들이 공존과 상생의 대합창을 열었다. 통도사 대웅전 불단 조형 속에 불이(不二)와 상즉입(相卽入)의 원융세계를 펼쳐 놓았다. 불단 위는 텅 비어 광대하고 고요하다.

〈사진작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불교인문학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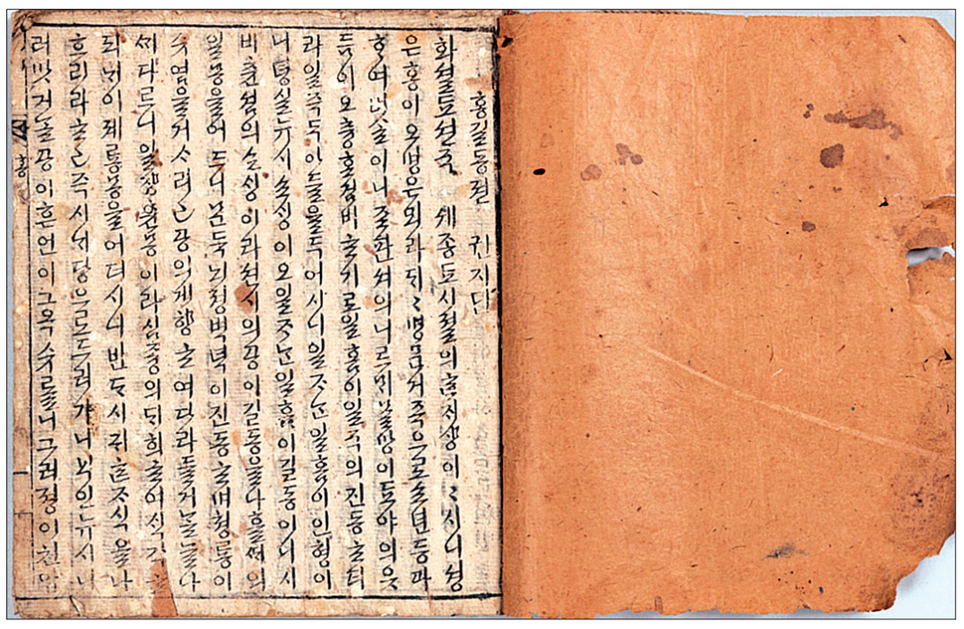
20 허균과 불교



▶맹난자 수필가는 숙명여자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국문과와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료했다. 1969년부터 10년 동안 월간 〈신행불교〉 편집장을 지냈으며 1980년 동양문화연구소장 서정기 선생에게 주역을 사사하고 도계 박재완 선생과 노석 유충엽 선생에게 명리를 공부했다. 2002년부터 5년 동안 수필 전문지인 〈에세이문학〉 발행인과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역임하고, 〈월간문학〉 편집위원과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 뜰〉 〈라데팡스의 불빛〉 〈나 이대로 좋다〉, 선집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이 있으며, 작가 묘지 기행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등이 있다.

“깨우치니 삼라만상이 모두 空이더라”





조선 중기 문인 허균 영정(사진 왼쪽)과 허균이 지은 한글소설 〈홍길동전〉(사진 오른쪽).

조선 중기 천재 문인 교산 허균
불명 ‘백월거사’로 신심 돈독해
서산, 사명 대사 교류하며 수행
“불우한 사람은 모두 우리 책임”
빈자들과 나누려했던 자비 보여

역적이라는 죄명으로 비명(非命)에 간 천재, 허균(1569~1618)의 불명은 백월거사(白月居士)이다. 스스로 성성옹(惺惺翁)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의 별호는 교산(蛟山)이다. 고향 강릉의 바닷가에 솟아 있는 교문암(蛟門巖)에서 따와 호를 삼았다. 교산은 ‘이무기의 산’이란 뜻이니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좌절을 그는 미리부터 예감했던 것일까.

명리학에서 사람의 운명이란 대체로 ‘환혼동각(環魂動覺)’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환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생로병사요, 혼이란 조상의 영혼과 DNA, 그리고 가정교육이며 동(動)이란 그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이다. 각(覺)이란 당사자의 깨달음으로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덕망 있는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강직한 그의 혈통과 문학에 대한 비범한 감수성, 그리고 불법에서 만난 깨달음 등이 혼탁한 시대에 처한 그를 그렇게 살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기가 어렵고 특히 어릴 때의 경험은 평생을 지배한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은 서경덕의 문인(門人)으로 학자이자 문장가이며 정치가로 동인의 우두머리였다. 조광조의 신원(伸冤)을 청하다가 벼슬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며 청백리로 기록에 올랐다. 전처소생에게서 두 딸과 아들 성(筬)을 두었고, 후처에게서 둘째아들 봉(篈)과 초희 난설헌과 균(筠)을 두었다.

허균은 다섯 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 아홉 살 때에는 시를 지을 줄 알았다. 둘째형의 친구, 손곡 이달의 문하에서 누이 난설헌과 함께 시를 배웠다. 누이와 시를 배우던 이때가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그는 술회한다. 손곡 이달은 대제학을 지낸 이첨의 서손으로 서얼 금고(禁錮)라는 신분차별제도에 갇혀 뜻을 펼칠 수 없었다. 좌절한 스승의 영향아래 균은 양명학에 심취되고 핍박받는 불우한 서자와 문사들과 어울리며 신분의 차별이 없는 이상사회를 꿈꾸었다. 양명학은 학문과 행동의 일치를 중시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며 인간의 평등을 지향한다.

내 마음의 본체는 천리(天理)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창한 왕양명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의 이치와 합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성인이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는 인간평등관을 부르짖었다. 허균의 이러한 개혁의지는 그의 소설 〈홍길동전〉에 잘 나타나 있다.

의적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어서 스승 이달처럼 집에서는 호부호형을 못하고 사회에서는 벼슬길이 막힌 모순된 현실에 울분을 느낀다. 의적이 된 칠서들은 가렴주구를 일삼는 토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홍길동은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는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율도국을 세우려한다. 실제로 허균이 살던 시대는 임진왜란과 네 차례의 당쟁사화(士禍)로 사회는 말할 수 없이 어지럽고 민생고는 참담했다. 가뭄에 흉년까지 겹치자 도적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임진왜란으로 피난길에 오른 허균의 처는 단천에서 첫아들을 낳았으나 출산한 지 사흘 만에 죽고, 아들도 곧 어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나이 22세, 균의 나이는 24세였다. 잇따른 가족들의 죽음. 12살 때는 아버지를 여의고, 20살 때는 스승 같은 둘째형을, 21살 때는 애지중지한 누이 난설헌이 죽었다(27세). 어머니의 장례는 33살에 치렀다. 이른 나이에 겪은 시련, 생사의 덧없음과 통절한 무상(無常)감이 그를 공문(空門)으로 기울게 했으리라. 그의 둘째형 허봉은 대간으로서나 어사로서 기강을 바로 잡는 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전한다. 성격이 곧고 분명했으며 유성룡, 임제, 이달, 사명대사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창원부사로 있을 때에 군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종성으로 유배되었다가 3년 만에 겨우 풀려났다. 그 후 주어진 벼슬자리를 모두 거절하고 유랑산천을 떠돌다가 백운산에 들어가 불문에 귀의했다. 균은 형에게 글을 배우려고 백운산으로 찾아갔다. 형과 친분이 두터운 사명 스님을 만나 불교에 눈뜨기 시작했다.(2년 뒤 봉은 38세의 나이로 금강산에서 죽었다.) 균은 서산 대사의 비문을 쓰고 사명 대사의 문집에 발문을 썼으며 그가 쓴 사명당비명은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허균은 관아 별실에 불상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했으며 염불과 참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604년 황해도 군수로 있을 때, 불교를 믿는다고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났고 1606년 명나라 축하사절로 온 주지번을 맞아 해박한 지식으로 그를 감동시킨 공로로 삼척부사에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이단의 책을 읽고 또 부처를 받들었다며 쫓겨났다. 사헌부에서 그의 파직을 주장하는 글을 보자.

“삼척부사 허균은 유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비와 형을 배반하여 불교를 믿고 불경을 욉니다. 평소에는 중 옷을 입고 부처에게 절했으며 수령이 되어서는 재(齋)를 올리고 중들을 먹이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에는 제멋대로 선(禪)과 부처를 좋아하는 말을 늘어놓아 유교의 교화를 현혹시켰습니다. 지극히 해괴합니다. 벼슬자리에서 몰아내어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으소서.”- 〈선조실록〉

삼척부사에서 쫓겨난 그는 친구 최천건에게 자신의 심경을 편지에 적었다.

“제가 세상과 어긋나서 죽거나, 살거나, 얻거나, 잃거나 간에 마음에는 조금도 걸림이 없습니다. 점차로 도교나 불교의 무리에 쫓아가 거기에 의탁해서 스스로 세상을 도망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깊숙이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더욱더 불교의 글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에 통달한 견해를 보니 골짜기가 갈라지고 강물이 터지며 불경의 문자는 경황없이 아득하여 마치 나는 용이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듯해서 꼬리, 지느러미, 발톱 껍질을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니 묘연하여 정신이 저 하늘 끝에서 노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글을 읽지 않았더라면 거의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뻔했다고 늘 말했습니다. 거듭 연구하여 그 숨은 뜻을 궤뚫어보니 심성이 저절로 밝아져서 깨달은 바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배운 장자나 주자의 학설을 취하여 그들 학설 중에서 심성에 관한 것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같고 다른 견해와 참과 거짓이 서로 경계됨을 분석하고 논증했더니 자못 저절로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글을 지어 그 뜻을 밝혔는데 부처를 믿었다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킨 듯합니다. 제가 오늘 날 미움을 받아서 여러 번 명예를 더럽혔다고 탄핵을 받았으나 한 점의 동요도 없습니다. 어찌 이것으로 제 정신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이는 허균의 유일한 문집인 〈성소부부고〉 문부서에 적힌 글이다.

하필 그는 신분제도에 갇힌 서손 스승을 만났고 양명학에 빠져 서얼들과 어울리며 새 세상을 꿈꾸었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시대에 태어났으니 그의 핍박은 예상된 것이었다.

균은 서른네 살이 되던 1602년 서산대사에게 네 차례나 서신을 보내 가르침을 청했는데 편지 글에는 ‘남과 나 그리고 만물이 모두 공(空)이다’라고 쓰고 있다. 1610년 해안스님에게 보낸 편지글에도 같은 글이 적혀 있다.

“나도 또한 불교를 좋아해서 일찍이 그 글들을 읽어보았더니 환하게 마음에 깨우쳐지는 것이 있었고 삼라만상을 비추어보니 모두 공(空)이었다. …마땅히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어서 무여열반에 들어 잠잠히 소림, 황매와 더불어 나고 죽는 큰 환란을 없애 번뇌의 바다 건너는 것을 함께 한다면 머리는 깎지 않고 가사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해안(전라도의 스님. 동갑내기 친구)과 나는 같은 석가모니의 무리이다”
–〈성소부부고〉 문부 서

달마대사(소림)와 5조 홍인스님(황매)과 더불어 일체제법의 무생무멸(無生無滅)의 이치를 체득하여 무여열반에 든다니 그는 이미 적멸위락(寂滅爲樂)이 아니신가. 다행히 공관(空觀)을 체득하신 그러나 무참했던 백월거사의 참수현장을 떠올려보게 된다.

1618년 늦더위가 한창인 8월 26일. 서쪽 저잣거리의 형장에서 많은 벼슬아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효수되었다. 그의 머리는 ‘역적 허균’이라는 팻말을 단 막대묶음에 매달려 저잣거리에 효시되었다. 그의 나이 50세. 죄목은 인목대비 폐출사건에 연류된 것이었다.

“대비 폐출을 반대하던 유생들이 죄를 몽땅 허균에게 덮어씌우고 기준격의 상소문에 따라 국문할 것을 날마다 요청하였다. 실질적인 가담자 이이첨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교묘하게 허균에게 돌린 탓이라”고 외손자 이필진은 〈성소부부고〉 말미에 적고 있다. 이이첨은 허균과 과거동기생으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도의 제24조 사자(sinha)존자도 참수됐다. 돈독한 불자였던 임금은 외도들에게 시해를 당할 뻔하자 화가 몹시 나서 사자존자에게 따져 물었다.

“존자는 오온이 공(空함)을 깨달았는가?”

“예, 깨달았습니다.”

“생사는 여의었는가?”

“이미 생사를 여의었다면 나에게 존자의 머리를 줄 수 있겠는가?”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어찌 머리를 아끼겠습니까?”

칼은 즉석에서 내리쳐졌다. 땅에 떨어진 존자의 머리. 그때의 허균의 심정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미 본무생사(本無生死), 구경무아를 체득한 성성옹(惺惺翁)이니까. 성성하게 깨어있는 각자(覺者)로서 죽음 없는 열반(不死)에 들었을 것이다. 막대에 목이 걸린 백월거사(白月居士)의 모습을 생각한다.

“세상의 불우한 사람은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울부짖으며 가난한 벗들과 밥을 나누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을 책임지려고 애쓴 백월거사의 동체대비사상과 그 평등심에 경의를 표하며 이 사람은 삼가 긴 묵념을 바친다.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 · 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 2024년 1월 14일 ~ 2024년 1월 23일
▶ 2024년 2월 13일 ~ 2024년 2월 22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4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동 참 금 : 259만원~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 · 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 2023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 · 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육도윤회 원인은 망견과 망습

〈妄見〉 〈妄習〉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㊴ 윤회(輪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원문〉 "아난아, 일체중생이 실은 본래 진실하고 청정하건만 저 망견(妄見)을 인하여 망습(妄習)이 생기느니라. 이리하여 내분(內分)과 외분(外分)이 나누어지게 되었느니라.

아난아, 내분은 곧 중생의 안의 영역이니 애욕에 물듦을 인하여 망정(妄情)을 일으키고 망정이 쌓여 쉬지 아니하면 능히 애수(愛水)가 생기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중생이 마음에 진수(珍羞)를 생각하면 입속에 침이 나오고 마음에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고이며 재물에 욕심을 두면 군침이 돌며 온몸에 생기가 나느니라. 이러한 애욕이 비록 다르나 흘러 결과를 맺는 것은 같으니라. 축축한 것은 올라가지 못하고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나니 이를 안의 영역(內分)이라 하느니라.

아난아, 외분(外分)은 중생의 바깥 영역이니 갈앙(渴仰)을 인하여 헛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쌓여 쉬지 아니하면, 능히 수승한 기운이 생기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중생이 금계(禁戒)를 지니면 온몸이 가볍고 맑으며 마음에 주인(呪印)을 지니면 돌아보는 얼굴빛이 굳고 씩씩해 보이느니라. 또 마음에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면 꿈에 날아오르는 것이 나타나며 마음을 불국(佛國)에 두면 성인의 경계가 그윽하게 나타나고 선지식을 섬기면 스스로 몸과 목숨을 가벼이 여기느니라. 아난아, 여러 가지 헛된 생각이 비록 다르지만 가볍게 들뜨는 것은 같으니라."

〈강설〉 '중생이 본래는 부처였다'는 것이 대승경전의 통설이다. 〈능엄경〉도 마찬가지다. 일체중생이 부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세계가 나누어졌느냐 하면 그 근본이 되는 이유가 '망견(妄見)을 인하여 망습(妄習)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무명(無明)에 의해서 업이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중생의 경계가 안팎으로 나눠져 내분(內分), 외분(外分)으로 갈라지며 안으로는 애정에 물드는 애염(愛染) 때문에 망정(妄情)이 일어나고, 망정이 쌓여서 애수(愛水)가 생긴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리적인 사례까지 소개하였다. 그리운 추억 등을 생각할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말도 하였다. 감정의 변화로 신체상에 나타나는 반응들의 이야기다. 애염(愛染)은 결국 물처럼 흘러 아래로만 내려가 나중에 업의 매듭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情)의 업(業)이 무겁다는 것이다. 애염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가 내분(內分)이다. 외분(外分)은 바깥의 경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헛된 생각(虛想)이 중심이 된다. 외분은 갈앙(渴仰)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허상(虛想)으로 이 허상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된다고 하였다. 외분에도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 금계(禁戒)를 지닐 때는 몸이 가볍고 맑아지며, 주력(呪力)을 하면 눈매가 딱딱해지며,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날아오르는 꿈을 꾼다 하였다. 부처님 나라를 생각하면 부처님 경계가 가만히 나타난다고도 하였다. 내분은 애(愛)이고 외분은 상(想)인데 애는 물과 같이 흘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상은 멀리 날아다니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 이는 업의 성질을 구분한 말로 볼 수 있다. 내분은 아래로 내려가는 업이고 외분은 위로 올라가는 업이다. 달리 말하면 내분은 잠기는(沈) 형태이고 외분은 들뜨는(輕擧) 형태이다. 이것이 중생의 업보(業報)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분과 외분의 감정과 생각이 상승작용을 하여 내려가는 세계로 향하고 올라가는 세계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육도(六道) 가운데 인간도를 중심으로 내려가는 세계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가 되고 올라가는 세계는 아수라, 천상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아수라를 악도로 취급하여 4악도를 말하지만 아수라는 천상 곁에 있어 제석천하고 싸움을 자주 한다고 알려진 곳인데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때로는 선도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결국 올라가고 내려가는 내분, 외분의 상승작용에 의해 중생이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칠취설(七趣說)을 말하기 때문에 칠취 윤회가 된다. 다만 육취나 칠취에서 업을 짓는 중심이 되는 곳은 인간 세상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살갗수행 호흡법은 신경 씻어내는 것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㊴ 살갗호흡

살갗 호흡은 피부의 감각을 활용해서 외기를 집약하는 방법이다. 나선 호흡과 배호흡을 기본으로 한다. 나선 호흡을 통해 12개의 기점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 기점들을 운용하면서 살갗 호흡을 한다. 들숨에 외기를 집약하고 날숨에 신경을 씻어낸다. 배호흡으로 들이쉬면서 백회, 옥침, 영대, 명문, 미심, 중심, 하단전 기점으로 외기를 빨아들인다.

각 기점에서 나선터널이 형성되도록 한다. 외기의 집약은 중간 기둥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백회 기점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점들은 한꺼번에 가동한다. 나선호흡으로 백회에서 중황까지 들이쉬면서 다른 기점들도 함께 주시한다. 무념주 기둥이 중황까지 세워지면 들숨을 중극까지 끌어내린다. 숨을 들이쉴 때 호흡의 감각을 백회에서 느낀다. 숨이 빨려 들어갈 때 백회가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면 감각이 열린 것이다.

백회의 들숨 감각이 명확하게 인식되면 조여드는 느낌을 나선 형태로 만든다. 백회의 표면에서 형성된 나선 느낌을 시상까지 끌어들인다. 숨을 들이쉬는 속도와 나선의 느낌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들이쉬어야 한다. 나선 느낌이 시상까지 내려오면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된다. 시상이 가바로 인해 억제되면서 세타파 상태가 된다. 나선 느낌으로 시상 억제가 능숙하게 이루어지면 숨을 끌어들이는 범위를 중극까지 확장시킨다. 백회에서 중극까지 밋밋한 기둥이 세워진 느낌이 들면 성취된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날숨을 수련한다. 중극까지 들이쉰 숨을 좌, 우로 나누어서 얼굴 쪽을 향해 내쉰다. 그러면서 전체 뇌신경의 자극을 느껴 본다. 눈, 귀, 코, 입, 얼굴의 자극을 느끼면서 좌우 감각의 균형을 살펴본다. 좌우 감각의 균형이 깨어져 있으면 복구될 때까지 반복한다. 들숨으로 억제하고 날숨으로 활성화시킨다. 이 과정을 꾸준하게 수련하면 뇌신경의 좌우 균형이 회복된다. 나아가서 머리부 체감각계도 교정된다.

뇌신경의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머리부 체감각을 인식해본다. 눈, 귀, 코, 입, 얼굴, 두정부피질의 네 모서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머리부 체감각계가 교정된 것이다. 뇌신경 교정이 이루어졌으면 다음 단계 호흡으로 수련을 심화시킨다. 백회에서 끌어들인 나선의 느낌을 꼬리뼈 끝까지 이끌어간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중극까지 내려왔던 나선의 느낌을 꼬리뼈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서 앞기둥과 뒷기둥의 여섯 기점을 함께 인식한다. 경수부와 흉수부를 지날 때 느낌이 살아 있는지 관찰하고 요수부와 천수부를 지날 때도 느낌의 상태를 관찰한다.

나선의 감각이 꼬리뼈 쪽으로 내려갈 때는 뻑뻑하게 억제된 느낌이 척수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다. 그러면서 몸 전체가 조여드는 느낌이 형성된다. 반복해서 수련하면 이 느낌이 더 커진다. 억제된 느낌이 명확해지면 날숨 수련을 한다. 날숨 수련은 네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가 경수부 날숨이다. 경수부의 목신경은 8개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3번 분절부터 팔 신경과 연결된다. 꼬리뼈까지 숨을 들이쉬고 경수부를 억제시킨다. 그러면서 앞 기둥의 세 기점과 뒷기둥의 세 기점을 함께 가동한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양쪽 팔 쪽으로 호흡의 느낌을 유도한다. 목 어깨를 거쳐서 손가락 끝까지 느낌이 전달되면 제대로 된 것이다. 양쪽 팔로 내려가는 느낌이 균등하면 목 신경과 팔 신경이 교정된 것이다. 처음에는 저린 느낌이 팔을 타고 내려간다. 그러다가 수련이 깊어지면 뻑뻑하고 뜨거운 느낌이 팔을 타고 내려가서 손바닥에 모여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신경을 씻어 내는 것을 '세수'라 한다. 살갗수행의 호흡법은 그 지체가 '세수법'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㊴ 무아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멈추게 되는 지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듣게 되는 본인 이름이 변해가는 본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불렸을 때, 스스럼없이 바로 대답했다면 그는 어느 때 대답한 것이 그의 진짜 이름에 대답한 것이 되겠는가. 시간 속에서 몸은 쉼 없이 변하고 있다.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마음도 변한다. 변하지 않으려는 것도 또한 변하는 것이다.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도 손댈 수 없는 본바탕일 것이다. 바탕은 지나가는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변했다고 하지 않고, 무엇이 사라지더라도 변했다고 하지 않는다. 바탕은 그 바탕으로서 움직임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 '항상하다'라는 말도 필요 없다.

사대오온으로 나왔다고 사대오온을 떠날 필요도 없고, 사대오온을 떠날 필요 없다고는 말하지만 오온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실재하는 것은 실재한다는 말이 없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다. 뭉쳐있는 것을 나라고 삼음도 없고, 흩어지는 것으로도 자신을 삼음이 없다. 언제나 바탕으로 있지만 언제나 다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본바탕을 알기 위해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귀동냥을 한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모아 그 본바탕에 빼곡하게 점을 찍어 놓는다. 나중에는 그 많은 점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점인지를 찾게 된다. 그러다 대부분은 포기하고 주어진 조건의 삶에 빠져 살게 된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비슷하다.

바탕에 점을 찍어 그것이라 말하는 순간, 바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이 생기지만 그것은 바탕이 아니다. 바탕은 이름이 없다. 그때그때 불리는 그 이름이 그 본바탕이다. 불리는 이름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니 다르게 불려도 듣는 것은 항상 같다. 부처라고 불리든, 중생이라고 불리든, 그 이름으로 자신을 삼지 않는다. 그러니 대답도 일정하다. 그런데 듣는 이는 그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 불러야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으면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듣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부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듣고 부르는 것이 일정할 때 그는 언제나 그것으로 부르고 그것으로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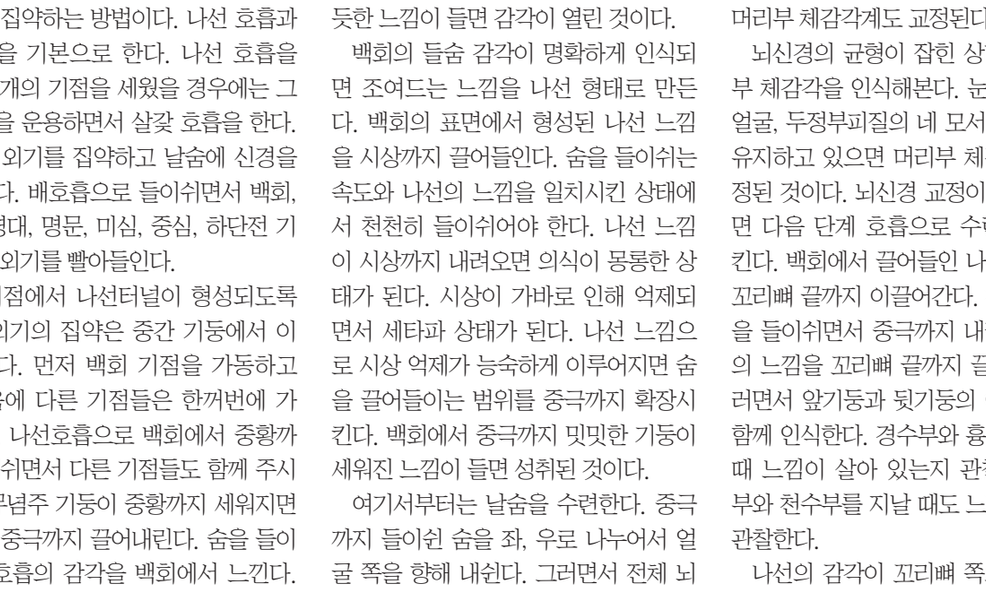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누가 대답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삶이든 수행이든 나라는 주체에 의심 없이 살아간다. 만약 '나'라는 주체를 인식하고 자신의 본바탕을 알려고 한다면 뿔 달린 토끼를 찾는 격이 될 것이다. 여기쯤 말하면 반 이상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날 것이다. 제시함 없는 것에서 바로 알지 못하고 항상 제시함에서 궁리하다 보니 제시함 없는 앎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문제를 내고 답을 맞히는 과정으로 생각하겠지만, 앎은 답을 맞히는 일이 없다. 앎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 속에 문제가 없고, 답 속에 답이 없고, 삶 속에 삶이 없고, 수행 속에 수행이 없고, 앎 속에 앎이 없다. 그러나 찾는 이에게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수행 속에 행함이 있고, 삶 속에 인연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게 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에서 불편해 하는 자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조금 어긋나는 바람에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인지하여 아는 것과 인지하여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앎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두 가지의 다름을 알지 못하면 항상 전자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여 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자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뜨거운 돌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 돌이 무겁든 가볍든 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후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의 어처구니없는 행동과 생각을 보고 아는 앎이다. 그러니 앎은 무엇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알고 나니 그런 행동과 생각을 바로 멈추게 되는 지혜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제6회 연수교육을 10월 5일 스리랑카에서
종정 법운스님과 지암 대성, 해진 지송, 혜인 추송, 법송 스님 외
종도들이 함께했다.



종도를 모집합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010—3544—2605 / 팩스 054)974-2705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6호 | 17 | 전면광고

혀를 놀려 거짓말하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토 굴 안 내

- 진주시 정촌면 무선산로 332 약수암
- 임대시 전세 일천만원
- 권리비 및 시설비 없음
- 매매시 주인 직접

010-4999-56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42평
- 한옥 2채 (위채:법당, 아래채), 큰 창고 1동
- 교통편 편리
- 가액 : 1억 8천만원 (절충 가능)

010-9338-1755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2천만원

010-6898-9114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 근교
- 2층 건물 : 2층 30평
- 2층 옥상 산신각 2평 공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 방사 1, 공양간1, 욕실겸화장실
- 보증금 : 5백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10-4799-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법당, 공양간, 스님 거실, 주차장, 창고, 산신각
- 평수 : 253평 (2택지로 나뉘어 있음)
- 금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 진주 시내에서 5분 거리 시내버스 주차장 가깝고 버스 다니는 길 있음

055-746-258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스님 건강상, 교통 아주 편리함

010-4535-5086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5천만원

010-2807-05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입구 3층 (30평) 전철역 10분
- 1천만원 – 월세 130 (부가세별도)
- 시설비 2천만원
- 건물 : 법당, 방1, 공양간, 욕실, 난방도시까스 (민원없음)

010-2855-9899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굿당해도 좋은 자리
- 가액: 3억 6천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조양동 대추밭 2길 14-43번지
- 대지 382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산신각, 종각
- 급매 3억 5천만원 (가격 절충 가능)

010-3875-35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4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104-13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미륵입상
- 가격 : 2억 8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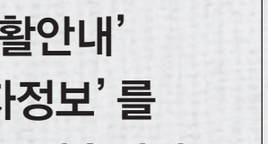
집기류는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 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연로하셔서 인연자를 기다립니다.

*굿당으로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010-9355-1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 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56호 | 18 | 전면광고

온갖 형상을 그릴 때에 좋고 추한 것이 화공을 따르듯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의 인연은 모두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내원암

• 중창주가 주지자리 물려줄 같은 종단 비구승 30~50대 건당상좌로 은사 없는 비구승을 찾고 있음.
• 기도비 받지 않고 공양해줄 기도보살님을 찾고 있습니다.
• 국내 제2 지장보궁과 5대 명산 산신님을 모신 국내 산신기도 제일도량임. 전화바랍니다.
• 주소:경북 예천군 효자면 명봉사길 139

054-653-1180 / 010-6353-1180

그린그린심리치유 상담센타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중 철학박사학위중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2011-12-82948호
사업자등록번호576-10-00995호 통신판매업신고증 번호 제 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아파서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탈골교정, 구안와사 상담후 치매 완치 100% 세계 최초 치매완치(完治)전문의 [업무 오전 10시~오후 4시]

061-852-1003 / 010-2159-3003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N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비구니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이상 (연령무관)

010-5049-1533

하나힐링 광물찜질

모든 병은 독소, 염증, 혈관막힘이 원인
1억 파장 양자 음이온 토로말린 파장
암개선, 간, 신장, 척추, 허리, 무릎, 피부, 만성질환, 모든 환자에게 도움
• 1회 15,000원 대림역 10번 출구
• 자연치유 무료 상담

010-4633-8864

뚜렷한 병명도 없이 아프신 분들이나 소원을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은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토속신앙 지장신앙 산신신앙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산암행스님은 동양 최초로 각명산의 산신령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다 모신 제천 심흔사 회주 스님으로써 수십년동안 염불기도로 수행정진해온 원력으로 마지막 회향 기도로 몸과 마음 다 바쳐 혼을 실은 기도로써 부처님 불보살님 산신령님의 위신력을 입증해 보여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010-8547-1473,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⑱ 좌망(坐忘)



해탈
〈解脫〉

선선한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가을의 향기. 참 반갑고 고맙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풍성함이 가득한 계절이 왔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산천초목도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가을 풍경을 드러내겠지. 뭔가 모르게 자유로움이 내 곁에 안기는 듯 참 좋은 계절이다.

불교는 스스로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추구하는 종교이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즐거움을 베푸는 종교이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 속에 괴로움도 있겠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이 좋은 계절 가을, 잠시라도 굴레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보자. 고뇌에서도 벗어나 보자. 자신을 감싸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 보자. 모든 것을 내려놔 보자. 그리고 '나' 를 찾자. 환하게 웃으시며 반기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자. 이 가을에. 나무 석가모니불

〈서예가〉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② 중독, 고(苦)를 회피한 결과

밑바닥 체험이 극복의 첫걸음

무더운 여름이었다. 상담실로 찾아온 영이 씨(가명)의 눈가는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되는 물기로 가득했고, 멍한 표정으로 한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다. 시원한 물을 담아 건네자 컵을 들고선 울기 시작했다. 영이 씨는 흐느끼며 "오늘은 죽어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했다. 영이 씨가 "나가 죽어! 제발 나가죽어버려!"라는 모진 말을 쏟아낸 대상은 바로 영이 씨의 아버지였다.

영이 씨의 아버지는 익명의 알코올중독자회 (Alcoholics Anonymous, AA)에서 단주를 실천하고 있었다. 6개월 동안 단주하다 영이 씨가 상담실을 방문하는 그날 다시 술을 마신 것이다.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절망을 느끼고 "더 이상은 못살겠다"며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영이 씨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한참을 걸어 상담실에 도착했다. 영이 씨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술을 반복해서 찾기 시작했다. 사별 후 어렵게 딸을 보살피고 키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낮에 소주 다섯병을 들이키고 길을 걸어가다 도로에 넘어졌다. 넘어진 아버지를 피하려던 자동차는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고 운전자들은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 이후 아버지는 단주를 결심했다. 하지만 결국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영이 씨는 26살이었고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서 상담실을 찾곤 했다. 심각한 우울감과 자살 시도로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의 단주 결심에 기대를 하면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는 좌절로 영이 씨의 마음은 절망이 가득했고, 결코 자신의 삶은 이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겼다.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중독 당사자는 술의 유혹을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중독자와 함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하다. 가족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처럼 피폐해진다.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가족들은 중독자의 치료가 우선시 되기에 자신의 어려움은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이 문제 원인이 아니기에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중독은 대물림 현상이 있다. 어릴 때 부모가 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힘겨운 문제가 생기면 그 모습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가족은 중독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자가 되지만 동시에 희생자인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알코올의 효과는 잠시나마 정신적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다. 억압했던 마음도 쉽게 풀어지고 홀가분해진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직면하기에 너무나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나는 '회피' 의 안위이다. 이런 욕구는 강박적으로 음주를 부추기고 점차 술에 대한 갈망은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알코올 중독 12단계 치료법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밑바닥 체험' 이다. 바닥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회심' 을 위한 동기를 위해서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는 계기이며 그 밑바닥은 각기 다르다. 마주하기 힘들어 피했고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을 밀어낸 '괴로운 현실' 을 직면하는 것. 이것이 첫 출발이다.

'바닥치기' 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집요하게 따라 붙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유혹은 안이비설신 오감의 모든 감각을 통해 촉발된다. 즉 매일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마음자세가 아니면 쉽게 넘어가버린다. 그리고 마음의 갈망을 부추기는 생각들이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 '즐기고 싶다' , ' 될 대로 되라' 등 갈망을 부추기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치료에서 명상 과정이 포함된다.

책 〈고타마 붓다의 생애〉를 보면 현실을 도피하고 매일 밤을 향락으로 보낸 사람이 나온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베나레스(현, 바라나시)에 야사(Yasa)라는 젊은이가 살았다. 야사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보냈다. 현대 시점으로 설명하자면 재벌가의 외동아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야사는 부호의 아들이었고 겨울과 여름 그리고 우기를 보내기 위한 세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야사는 별장을 돌아가며 지냈고 애욕을 즐기고 누렸으며, 매일 밤 각 처소에는 여자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유흥을 제공했다. 마치 뉴스에서 보는 재벌 2세의 마약파티 같은 장면이 떠오른다.

현실 도피를 위해 향락 즐겼던 야사
공허함 느끼고 현실 마주하며 이겨내

이런 삶을 살던 야사가 마음을 돌이키는 통찰을 마주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야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시녀들이 뒤엉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추악함과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 무슨 재앙인가! 이 무슨 재난인가!"라며 탄식하고 녹야원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간다. 부처님은 야사에게 "여러 애욕에는 환난과 공허가 있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큰 공덕이 있다"고 설법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현실이 주는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환난과 공허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술은 손쉬운 회피 도구이다. 하지만 술은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더욱 깊은 좌절로 이끈다. 눈덩이처럼 괴로움을 크게 하고 결국에는 희망마저 꿈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다. 부처님은 애욕에는 환난과 공허가 있다고 했다.

부처님은 아들을 찾아 온 야사의 아버지에게 "발생한 것은 모두 소멸한다"며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한다. 부처님이 설법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苦)이다. 괴로움의 존재이다. 삶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접촉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자각과 일깨움이 시작점이 되어야 중독자들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참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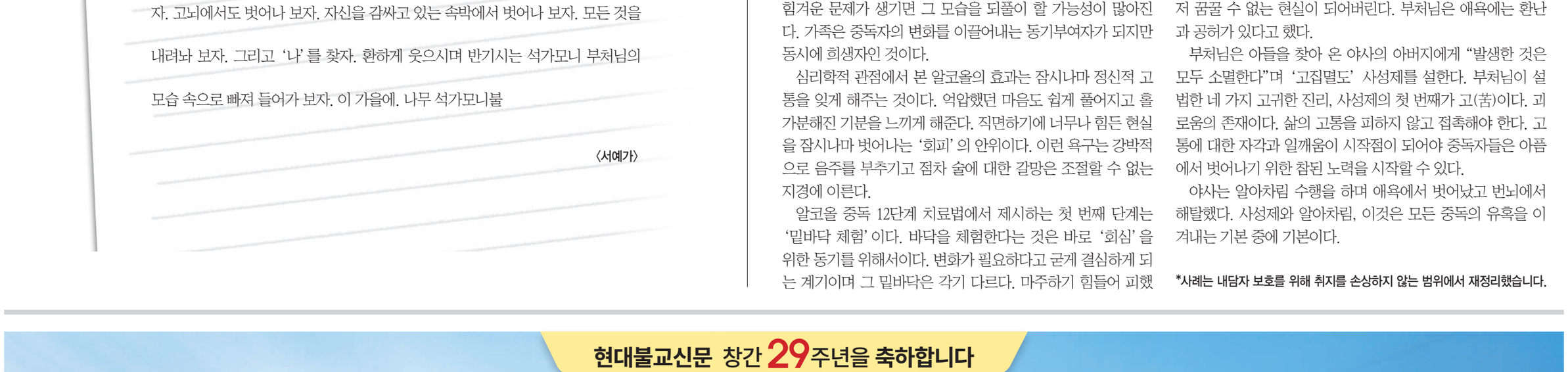
야사는 알아차림 수행을 하며 애욕에서 벗어났고 번뇌에서 해탈했다. 사성제와 알아차림, 이것은 모든 중독의 유혹을 이겨내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 8017-1010 ⓕ 8017-1011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㉒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한줄 요약
AI 명상의 시대에 개인별로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라질 것이다.

AI 활용 명상, 데이터 축적 최우선

인류 문화유산이자 지혜의 전통을 가진 명상이 디지털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필자는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명상의 산업적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메타휴먼과 AI의 명상소통 세션에서 '명상과 AI,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상분야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매우 놀랐다. 지난해 12월에 'AI시대 명상앱'이라는 주제로 한국명상학회에서 발표할 때와 비교했을 때와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 맞춤형 명상콘텐츠를 영상으로 생성할 수 있었는데, 만들어내는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콘텐츠 품질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은 간단하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먼저 챗GPT에 "내 이름은 램스리입니다. 32살이고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명상스크립트에 제 이름과 직업관련 단어를 사용하여 짧은 맞춤형 명상 스크립트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명령하면 챗GPT는 다음과 같이 즉각적으로 개인화된 스크립트를 생성한다.

"안녕하세요 램스리님.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이완하도록 허용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떠오를 수도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은 그냥 흘러가도록 합니다.…당신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단지 눈을 감고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마음의 공간으로 돌아오세요. 램스리님! 항상 건강하세요."

맞춤형 스크립트 내용이 어떤가? 꽤 친절하고 잘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생성된 스크립트는 텍스트를 오디오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음원을 생성한다. 음원 생성 프로그램은 29개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다.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 AI가 아닌 인간의 목소리로 착각할 정도다. 다음으로 영상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AI로 생성한다. '고요한 호수 앞에 서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할 때 숲으로 둘러싸인 하늘을 비추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전체 스크립트 맥락에 맞게 이미지가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자막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자막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개인 맞춤형 명상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AI 명상 콘텐츠를 바로 생성할 수 있는 이유는 명상관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챗GPT가 만들어내는 명상 스크립트는 웬만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었다. 특히 마음챙김명상 관련된 데이터는 1979년 MBSR(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데이터가 생성 및 축적되고 있다. 현재 매년 3000편 이상 마음챙김 관련 논문이 출시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명상 데이터는 앞으로도 계속 축적될 것이기 때문에 AI 기반 명상 콘텐츠의 품질도 높아질 것이다.



챗GPT, 간단한 활용만으로
명상스크립트 얻을 수 있어
명상 디지털화 점차 빨라져
한국도 서둘러 지혜 모아야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명상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속도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티벳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된 정신문화 전통인 명상은 강한 종교적 색깔을 가지면서 깨달음과 같은 깊이 있는 영적 목표를 추구해왔다.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 숭산 스님, 스즈키 순류선사, 아잔차 스님, 아찬 붓다다사 스님, 마하시 사야도, 사트야 나라얀 고엔카 같은 분들이 서양에 소개된 대표적인 스승들이다. 대니얼 골먼과 리처드 데이비슨이 공저한 〈명상하는 뇌〉에서는 이렇게 대중적인 확산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명상을 제1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제2수준 명상은 서구인들의 언어, 문화, 정서 등에 맞게 각색된 형태로 제1수준보다 깊이는 낮아지지만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넓이는 더 넓어지는 단계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명상 지도자로는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래리 로젠버그, 조안 헬리팩스, 샤론 살츠버그 등이다.

제1수준과 제2수준 모두 대중적 넓이보다는 깊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불교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을 통해 아날로그적으로 명상이 보급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제3수준에서는 MBSR, MBCT(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MSC(마음챙김자연민) 프로그램, 한국에서 개발된 HST(하트스마일명상) 프로그램 등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제1수준과 제2수준보다 깊이는 얕아졌지만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심리치료 형태 등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넓이는 확대되는 단계다. 제3수준은 여전히 아날로그 중심이지만 인터넷 및 온라인 채널과 같은 디지털 방식을 일부 이용하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명상이 디지털과 급속하게 연결되는 시점은 제4수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명상앱이나 기업명상 교육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단계다. 2012년 구글이 명상 프로그램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도입하였다. 이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기업명상 프로그램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명상앱은 2015~2020년 사이에 약 2500개가 출시되었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시장 성장률도 13.4%로 전망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0년에 출시된 헤드스페이스앱은 현재 전 세계 19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2012년에 출시된 글로벌 1등 앱인 캄은 2021년 이미 1억 다운로드가 넘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명상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의 하루명상앱도 2023년 1월 무료 전환 이후 급속한 속도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명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 디지털 기술이 바로 '앱(App)'이다. 앱을 개발해 출시하면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줌(Zoom)과 앱이 융합된 명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4수준에 와서는 종교색은 거의 사라진 단계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간단한 앱 다운로드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명상이 일상의 삶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명상이 일반화되고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이보다는 넓이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트렌드를 일부에서는 종교적 가르침이 지나치게 상품화되었다는 비판들도 있다. 맥마인드풀니스(McMindfulness)라는 말이 대표적인 비판적 표현이다. 당장 배를 불리지만 지속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식탐 같은 영적수행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용어다.

〈명상하는 뇌〉의 저자들은 책을 집필할 당시 미완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과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제5수준인 AI 명상앱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제5수준 명상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실로 다가왔다. 제4수준의 명상앱에 AI 기술이 접목되면 넓이는 물론 깊이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과연 AI 기반 명상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상당부분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명상 지도자들은 AI 기술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대 인간으로의 연결성, 스승에 대한 믿음, 명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내 등은 아직 AI로 대체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명상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데이터가 디지털로 축적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AI는 답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의견을 주게 된다. 반면 일반적 수준의 명상 안내나 질의응답은 지금도 상당부분 가능하다. 인간과 AI 기술이 함께 가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 명상관련 AI 수준은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5~10년 내 명상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탑재한 유명 해외 명상앱들이 한글화해서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AI 기반 해외앱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자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국내에는 AI 엔진이 탑재된 앱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하루명상앱의 경우 2024년 AI 기반 추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글로벌앱과의 갭이 크다.

영성의 시대, AI 명상의 시대에 개인별로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라질 것이다. 맞춤형 콘텐츠 생성 및 추천을 위한 핵심 재료가 데이터다. 한국에는 우수한 정신문화인 명상 전통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 이러한 전통을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로 축적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해외 명상에 의존할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 이제 명상관련 정책 담당자, 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K-Meditation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날이 조만간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대행 스님

잘나고 못나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알라

(어느 스님께서 성불했느냐고 물으매 말씀하심) 석존이 계실 당시에도 석존의 제자나 석존이 어디 가시면 돌팔매질을 하고 머리를 깨뜨리고 제자를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것은 너무 질투가 심하다 보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알고 이것을 논의할 때가 못 됩니다. 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안다면 그 또한 나인 것을 왜 질투가 생기는 겁니까? 여자고 남자고 우리 한 집안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저 딸이든 이 아들이든 한가족입니다. 누구라도 좀 더 잘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은 아마 누구나가 다름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한갓 웃음밖에 안 나는군요.

예절을 똑바로 지켰든 안 지켰든 나이기 때문에 그 참 억설로 나오는 말이지만 공손히 대답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릅니다. 가르쳐 줘도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말이 있기 이전이 있다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이 있기 이전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걸어올 때 말을 하고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일을 할 게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찰나찰나 나투면서 말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에서, 배우기보다도 나를 알라는 그런 뜻에서 얘깁니다. 나를 먼저 알라는 얘깁니다. 나를 먼저 모르면 저런 행동이 나오고 무리한 일이 나오고, 생활에 보탬이 없고, 공덕과 복덕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는 앞으로 살아나가기가 힘들다는 거를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설법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가는군요. 그것도 고맙군요, 또. 허허허. 참 뭘로 보나, 이걸 봐도 설법이 되고 저걸 붙여도 설법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는 생활이기 때문이죠.

초발심에서 우리가 이 도리를 감응을 하고 또 감을 잡아서 나가려면 내가 항상 주인공에다가, 요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하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그냥 여러분이 매일 들어도 그것이 알쏭달쏭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은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인공에다가 맡겨 놔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 맡겨 놓으니깐 잘됩디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하는 데 그렇게 좋고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곤 나가다가 어느 땐가 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엔 잘되더니 지금은 안됩니다." 이겁니다. 그래 나는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도 배워야지 되는 것만 안다면은, 안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양면을 걷어잡고 굴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요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애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사는데 어린애가 철모르고 덤벙덤벙, 지금 서너 살짜리가 뛰어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구덩이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 어린애는 가고 싶어 갑니다. 그런데 어른은 구덩이에 빠지겠으니까 붙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끌어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달아야 할 과정을 거쳐야 할 분인데, 즉 말하자면 어른이 다 된 것처럼 "왜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놔두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르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죽인 것도 무명을 쳤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것도 살린 거라 이 소립니다.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고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모두 맡겨 놔라, 몰락 놔라 하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진화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살던, 자꾸 몸을 바꿔 가면서 살던 습이 그냥 잠재의식에 얽히고설켜서 뭉쳐 있으니 그건 종 문서와 다름없다 이겁니다, 양반집의 종 문서. 만약에 그 종 문서를 불살라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양반집의 종으로 대대손손이 그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닥치는 대로 놔라. 우리 지금 요것이 알쏭달쏭한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판단을 잘하실 것 같으면 가늠이 되고 그것이 감응이 오게 되면 바로 나를 내가 발견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본래 빈 그릇을 본래 빈 그릇이라고 알았을 때, 빈 그릇이 아니라 꽉 찬 그릇입니다. 왜 비었다고 했고, 왜 무(無)라고 했는가?

우리는 한 발짝 뗄 때 쉬지 않고 떼어 왔습니다, 지금. 걸어왔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발은 아직 떼어 놓지 않았으니까 없고, 뒷발은 떼어 놨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이 없다는 뜻도 알게 되고, 우리는 꽉 찼는데 이렇게 나투어서 하루살이로 이렇게 떼고 가니까 발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고정되게 붙지를 않는다.

왜, 눈이 왔는데 미끄러져서 아주 유리알 같을 때에 발을 오래도록 거기 붙인다면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자주자주 떼어서 발이 그 얼음판에 딱 붙질 않는다면 그건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경험을 해 봤는데요, 아주 가파른 미끄러운 얼음판에 언젠가 한번 제가 뛰었습니다. '야, 이거 발이 붙으면 미끄러지겠구나.' 해서 거기를 그냥 뛰었습니다. 막 뛰니까 발이 미끄러질 새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끄러질 새가 없이. 고정되게 거기 못 박히듯 그냥 박혀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럴 사이가 없이 지금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빈 그릇이 아니라 꽉 찬 그릇입니다. 꽉 찼는데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돌아가서 이렇게, 그전에도 말했지만 애들 만날 때는 그냥 스스로 마음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도 달라지고 또 아버질 만날 땐 딸로서 생각나고 아들로서 생각나고 행도 나오고 말도 나옵니다, 스스로 누가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건 왜? 나한테 그 오관을 통해서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묘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을 사이 없이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보배를 그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을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굴리면서, 또 내 마음의 운전수를 만약에 누진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책정을 하면서 굴러갈 땐 굴러가고 참견할 땐 참견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구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거는 굴러가지 않는 건가? 그것도 굴러가는 거, 이것도 굴러가는 거, 잠자는 것도 굴러가는 거, 모든 게 전부…. 일 초도 쉬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떼어 놓으면서도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는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를 누구나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하느냐. 지금 우리 지수화풍으로서, 끈을 잇기 위해서 그 말을 또 합니다. 지수화풍이 전체 가늠할 수가 없이 헤어져서 생명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데 합쳐지니깐 어떠한 거를 조성해서 형성시켰습니까? 생명을 형성시켰습니다. 아주 위대한 생명을 형성시켰죠. 바로 지수화풍이 형성을 시켰습니다, 이 몸을. 일체 만물에 대한 그것을 형성시켰다 이겁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위대한 마음으로부터 한생각에 의해서 그 모든 미생물이 났다는 얘깁니다. 미생물만 난 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다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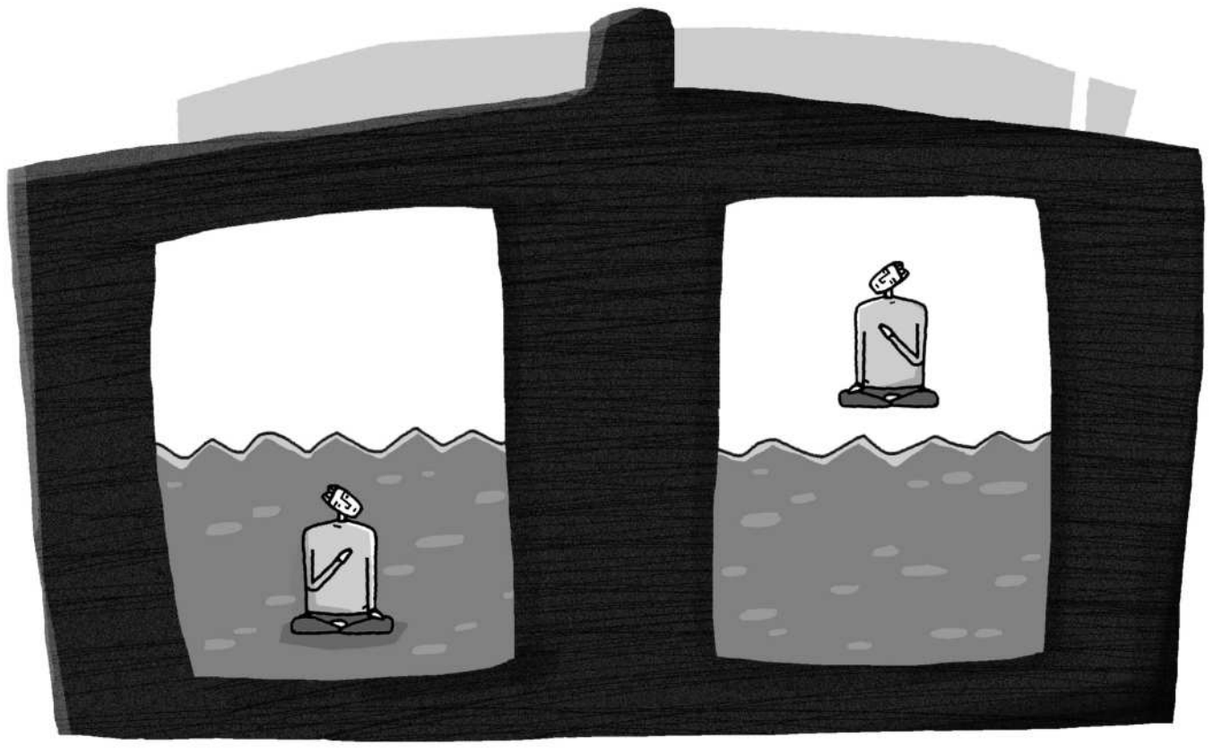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앞으로이 도리를 모른다면 점점 살기가 희박해집니다

☞ 21면에서 계속

났단 말입니다. 다 났는데 그것이 지수화풍이 아니면 그렇게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규합이 안 됐다면. 그래서 그 위대한 생명을 발견했고 조성해서 참, 그 몸을 형성시켰는데 미생물이 거기서 탄생을 한 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그건 자성(自性)으로서의 한생각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렇게 태어나서 수없이 거듭거듭 해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연구할 때, 처음에 물건을 하나 만들었을 때 처음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찌그러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생명의 모체를 조화를 이뤄서 형성시키는 데, 물질을 형성시키는 데 많은 실패를 했단 얘깁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공이 없이 방치해 뒀단 얘깁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살아나가는 데는 시공이 있어서 이것이 차곡차곡 순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순서가 없이 시공이 없이 놔뒀기 때문에 물씬물씬 그냥 자랄 대로 자라는 거고 악할 대로 악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물질이 상당히, 그 생명을 생명들끼리 잡아먹게 되고 또 형성시켰으나 모든 그 모습이 흉하고 그래서 실패작이 됐습니다.

이게 거듭거듭 서너 차례 실패를 하고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 이 조선으로선 단군이 한 가정의 어버이로서 그 길을 일러 줬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의 대의적인 문제를 일러 주신 건 석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석가나 단군할아버지가 아니 계셨다면…, 지금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 단군이나 석존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섰으면 씨앗이 거기 열려서 수많은 씨앗이 나왔다는 그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단군도 되고 석존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이 다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깨닫고 누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을 따지겠습니까? 참, 그런 분은 어리석은 분이라고 볼 수밖엔 없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자기로서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서는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 또 방해를 놓는다면 입도 떼지 못할 거다' 이러한 자기의 생각으로써 여기에 온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은 참, 다 부처고 법신이고 다 보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보신, 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로 나오니 법신, 예. 그러니 그 얼마나 교묘하고 광대무변한 여러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기에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원망은 안 합니다. 이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지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분이 오셨겠습니까? 망했든지 좋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을 바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은가. 고맙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세 번이나, 참 두 번이나 그랬고 적게 한 번이 돌아갔으니 세 번이라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천지개벽! 그렇게 실패를 하고 보니 인간으로 태어났고 우리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이 됐으니만큼 인간으로서 허무하다, 죽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자유자재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의 신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나갈 문이 있고 그렇지만 저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드나드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부처님이, 어떤 분은 '저거 형상인데, 뭘.' 하죠? 처음에 배울 때는 형상으로 봐야 하고 나중에 진짜 알았을 땐 스스로서 부처인 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허무하다 그러지만 이 몸뚱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라 껍데기, 껍데기가 소라가 아니고 소라 알맹이가 소라다. 소라라는 것도 이름이기에 그 살 속에는 또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똑같은 문제니까 말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나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맡겨 주신다면 여러분은 참, 이 세상에 어디다 내세워도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난 대인이실 것입니다. 대인입니다. 대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걸 부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던 끝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앞으로 물속으로 떠다니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요 묘한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수화풍으로서의 위대한 생명을 조성해서 형성시켰고 육신을 형성시켰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수없이 실패를 하면서도 또 발전을 해서 이날까지 계발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무의 세계의 무전자, 유전자 또는 지금 현재의 형성된 이 모습! 이런 문제가 바로 유전자의 그 미지수의 일들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로서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됨으로써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들은 주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초의 지수화풍이 그렇게 위대한 생명을 참, 방대하게 그렇게 조성했을 때 바로 그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있었고 지금도 바로 그분들이,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된 셈이죠.

그러면 왜 부처님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를 세밀하게 아신다면 우리는 지금 온 누리에 어떠한 육해공군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걸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고, 내 모습 없는 바로 나는 그 사람이 돼서 그 모습으로써 그 마음이 한마음이 돼 줌으로써 그것은 경제난에도, 육군에서도 공군에서도 해군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경제발전도 그렇고 공업의 발전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을 조절해서 잘되는 이치도 바로 내가 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행동을 하다가 좋은 사람의 마음이 거기 합세를 해 주니까 좋은 일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 몸뚱이는 마음에 따라서, 운전수에 따라서 차가 끌려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남을 치지도 않고 좋게 다니고 그러는 거와 같이, 사람도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잘된 연에, 마음이 좋게 된 연에, 행동도 그렇게 하는 연에 그 마음을 도로 쑥 빼 와도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그냥 서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이 있듯이 물이 고였다가 좀 더 부자연할 때는 밀물이 돼 주고, 더 좀 할 땐 썰물이 돼 주고 이러는 활용! 이러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시급하게 지금 써야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 **생각하기 이전 나를 진짜로 믿고 맡겨 놓는다면**
>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 내세워도**
>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난 대인이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점점 살기는 희박해집니다. 여러분이 참, 여러분 가정에 조화를 이루면서 향내를 내면서, 만 가지 꽃이 피어 만 가지 향내를 내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또다시 심으면서, 끊임없이 그 서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불국토를 이루지 않나. 불국토가 뭐 다른 게 불국토입니까? 우리가 천차만별로 차원이 되는 거, 차원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오관을 통해서 그 수레바퀴가 스스로 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책정을 해 가면서 자기가 그 단추를 누를 줄 안다면 바로 불국토입니다.

지금도 개발을 해서 로케트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력 원료를 쓰고 원자력을 다 발동해서 또는 전자나 원자나 다 써서, 우리는 갈 때도 올 때도 사는 것이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멋진 인간으로서, 이 혹성의 주인으로서, 또 혹성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건 왜? 우리는 지금 국내의 주인이지만, 우리 국내를 위해서는 전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국내를 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내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 안전한 방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되죠. 그럼으로써 전 세계를 도우려면 우주를 또 서로 상응하면서 이심전심으로써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의 주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뿐만 아니라 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은하계의 동네도 있고 참, 금성 동네도 있고 여러 동네가, 아주 은하계도 동네가 많습니다. 허공에도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생각에 그것이 모아지고 펼쳐지고 한다는 거, 그 얼마나 위대한 주인이시며 얼마나 그게 묘법입니까? 난 자부합니다. 어떤 스님이 "너 깨달았느냐?" 이러지마는 난 깨달았단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한마음이라 함은, 전 우주에 그 생명체들의 마음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데 누가 감히 혼자 내가 했다 이러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내 이 모습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그것을 발전하고 깨닫고 계발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얘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어도 얘기한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내놓을 게 없는 마음이요, 나도 내놓을 게 없는 마음이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말을 했다 하며 어찌 들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말은 했고 역력하게 들었잖습니까? 한 사이가 없습니다.

요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부분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생명의 그 주인들이 수많은 혹성들에 다 있고 행성에 다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만 여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나, 나, 나, 나 하다간 고만 저 이웃에도 가 보지 못하고는 그냥 옷을 벗는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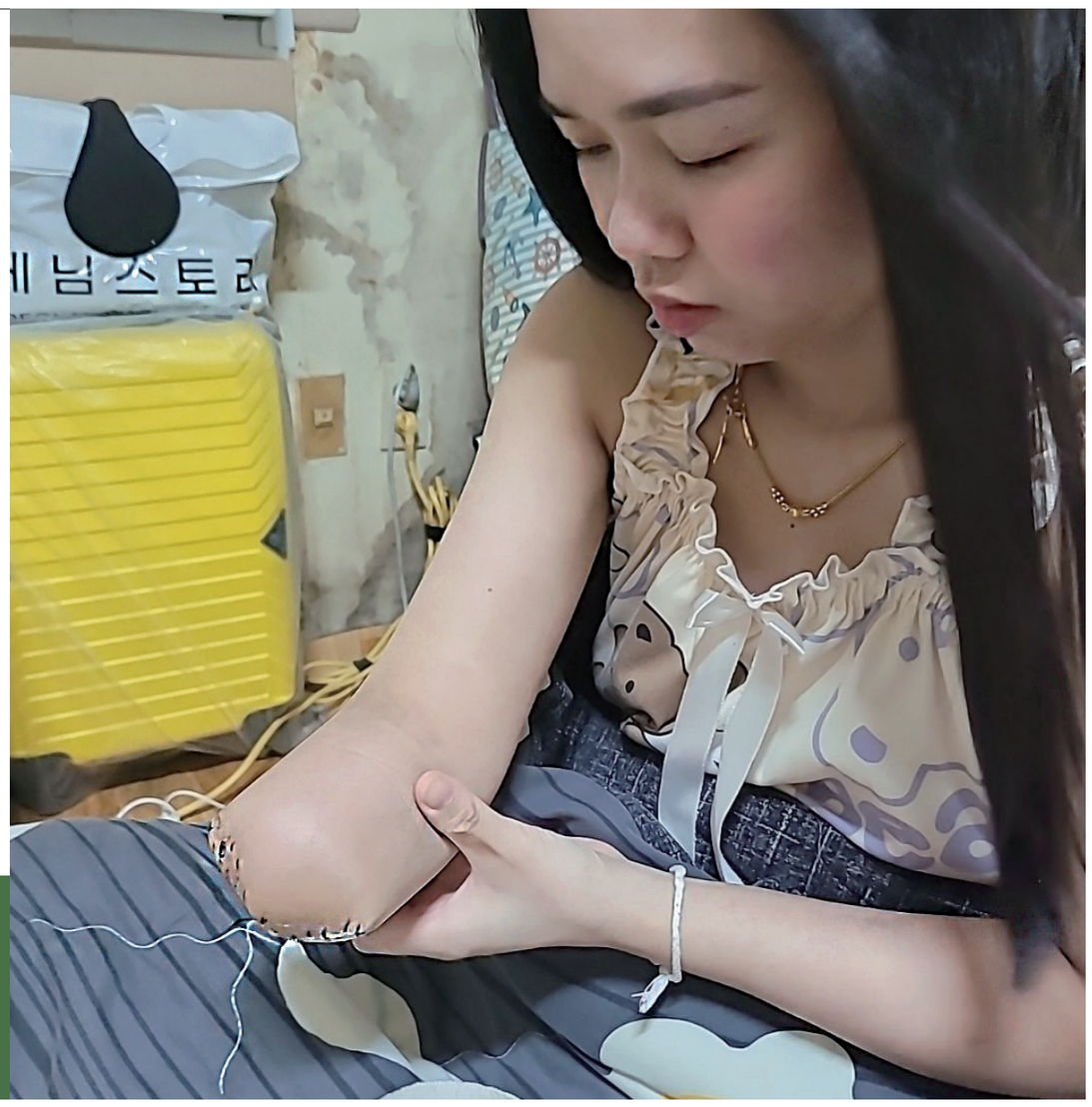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 마시고 넓혀서 오늘 저녁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억겁을 통해서 형성시켜서 조화를 시켜서 살아왔으니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닌가. 내가 뭘 아나.' 하고선 맡기는,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 시봉자! 시봉자가 돼서 그렇게다,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 믿듯 그렇게 믿고 모두 맡겨 놓는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련히 오죽이나 잘해 주겠습니까? 그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1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일시호일

컨테이너 벨트에 팔 잃고
두 딸 생각에 눈물만

태국 노동자 우사씨 "귀향하게 도와주세요"
재활치료 · 후유증에 의수제작비 없어 삼중고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현불논단

조계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칠정례 6번째엔 역대 선지식 예경
수많은 구법승 발걸음, 佛法을 전파
숭유억불 조선에선 민중들과 호흡해

현재도 각자 자리서 노력하는 스님들
그들이 있어 지금의 조계종이 존립해
과거부터 이어진 승가가 지금을 이뤄

낙엽 뒹구는 가을이다. 이런 가을 정취에 시를 읽어보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이다.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며칠 전, 승려교육기관에서 부처님께 예 올리는 예불문을 강의했다. 예불문 강의는 자주 하는 내용이 아닌지라 할 때마다 마음가짐이 다르다. 우리나라 예불문 의식은 통일되어 있다. 이 통일본은 1955년 최근에 열반하신 월운 스님께서 정리한 것이다. 당시 종파적으로 분분하게 행해지던 여러 의식을 통일해 우리나라 모든 사찰에서 일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예불문' 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에게만이 아닌 법보와 승보 등 삼보에 예경하는 칠정례(七頂禮)이다.

필자가 하고픈 얘기는 예불문의 6번째인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이다. 고대 인도(서역 포함)의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왔고, 중국의 승려들 또한 인도로 구법을 떠났다. 399년 법현 스님이 인도로 구법을 떠날 때, 사막길을 걸으며 이정표를 삼았던 것은 이전 구법승들의 해골이었다. 즉 법현 이전에도 수많은 승려들이 인도로 가다가 중간에 입적했고, 인도 구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최초의 승려가 법현이다.

우리나라 승려들인 경우, 〈왕오천축국전〉의 혜초가 있고, 중국으로 구법을 떠났던 수많은 승려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지금의 한국불교이다. 또한 조선시대 500년 동안 권력이 알아주지 않아도, 권력으로부터 위협받아도 야생화는 피고 지듯이 승려들은 들판에 핀 야생화처럼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묵묵히 꽃을 피웠다. 승려가 천민 대접 받고 나락으로 떨어진 속에서도 민중들과 더불어 면면히 한국의 불법(佛法)이 흘러왔다.

이제는 현재를 이야기해보자. 예전에 비해 스님들의 사회활동 폭이 넓어졌다. 수년전부터 불교 사회운동을 하시는 스님들이 뙤약볕에서 목탁 치고 맨바닥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민중들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불교계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은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또 올해 무더운 여름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 시위하는 스님들이 있었다. 한편 흠리스나 어려운 형편의 어른들에게 매일 점심을 대접하는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많이 있으며, 해외까지 나가 봉사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다. 고마운 분들이다.

또한 불교계 종단에서 일하는 스님들, 포교하는 스님들,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대중을 보필하며 여러 소임을 보는 스님들, 승가대학에서 강의하는 스님 등등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기에 현 우리나라 불교가 존립하고 있다고 본다.

조계종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또 어느 한 공간에서 구축된 것도 아니다. 과거 구법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이 계셨고, 현재 사찰에서 그리고 불교계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님들이 있기에 현 조계종이 존립한다.

들판에 여러 꽃이 만개하듯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수여 공간에서 서로 서로 꽃을 피운다.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승려들에 의해 조계종의 역사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미래도 가을날의 정취처럼 멋진 한국불교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며

바람이 분다. 가을빛을 실은 나뭇잎들이 폭설처럼 쏟아져 내린다. 헐거워진 나뭇가지 사이로 빛마저 부서져 흩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른 바람의 기척에도 나무는 서둘러 단풍잎을 떨쳐낸다. 단풍잎이 떨어진 바닥에는 손바닥 우주가 태어나고 있다.

〈벽암록〉 27장,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 스님에게 물었다.

"나뭇가지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樹凋葉落時如何)?"

"가을바람에 완전히 드러났느니라(體露金風)."

운문 스님은 무엇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대답했을까? 혹시, 누군가 욕심, 성냄, 어리석음 같은 오욕의 잎들이 다 떨어져 본체(本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할지 모른다. 본체를 탐진치(貪瞋癡)와 같은 나뭇잎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실체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말씀은 본체란 가을바람에 나무가 마르고, 잎이 부서지고 떨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본체란 따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여 드러나는 그 상태를



그림 · 최주현

일컫는다.

가을바람에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질 때 드러나는 본체는 무상(無常)이다. 나무에 물이 오르고 잎이 돋아날 때 드러나는 본체 역시 무상이다. 무상이란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풍에 지는 잎도 무상이요, 봄바람에 피는 꽃도 무상이다.

우리는 예쁜 꽃이 피어나는 봄철에는 무상함을 느끼지 않고, 무성한 잎이 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는 계절에 문득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 생성에서 소멸로 접어들 때 무상함에 눈을 돌리게 된다. 아름답고 패기 넘치는 젊은 시절이 영원하면 좋으련만 늙어 기력이 쇠잔해져 죽음이 가까워지면 삶이 허무하다고 한탄한다. 허무감이 인생무상을 안겨준다.

내가 마주하는 세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서 불변의 실체를 찾아 나선다. 세상이 덧없어, 변치 않는 영원성의 세계를 피안에서 찾는 것이 서양철학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랴.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만물은 시시때때로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 몸의 세포도 매일 매일 생멸하며 바뀌가고 있지 않은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나는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잎을 맞으며 가을 숲을 걷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 노랗게 물든 온 천지가 진여(眞如)이다.

〈작가〉

社 說

대학생 전법 성패에 불교 미래 달렸다

한국불교 최대 화두는 '대학생 전법' 이다. 지난 7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교구 · 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며 인력 인프라는 구축됐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 재원 마련이다.

실제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2000~3000만원 가량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가진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사비를 출연해 활동비를 보조하거나 어렵게 보시를 끌어오는 형태였다. 그러다보니 신실한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부재할 경우 불교 동아리의 명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대학생 불교 동아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은 앞으로 대학생 전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월결사가 오는 11월 11일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 를 개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목표로 내세운 매년 '1교구-1대학 불교 동아리 설립' 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는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고 또 완성"이라고 했다. 사실상 대학생 전법 불사의 성패가 곧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의미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 집중이 절실하다.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도들이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지금 전법의 기틀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한국불교 미래는 없다. 붕괴된 계층포교 부흥의 징검다리인 대학생 전법에 범불교계가 나서야 할 때이다.

태고종 변화 이끌 상진 스님 '公心' 행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10월 19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상진 스님의 100일 행보와 향후 계획들을 살필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6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 동안 보인 첫 행보는 '대외 소통' 이었다. 스님은 지방 종무원을 순시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경북도청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고, 오송궁평 지하차도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대외적인 자비나눔 행보도 이어갔으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성명 · 모로코 강진 애도문 · 건군 75주년 축하메시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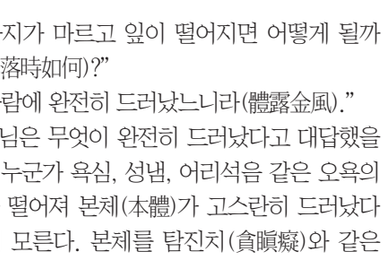
시간을 쪼개 동분서주한 이유는 상진 스님이 가진 공심(公心) 때문이다.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사심 없이 오직 공심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 한국불교 적자종단인 태고종단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태고종의 협력을 약속한 것도 종단의 위상을 강화해 종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간 100일 동안 대외적 소통 행보를 보였다면, 상진 스님이 계획하는 두 번째 행보는 태고종이 보유한 문화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태고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의 순천 선암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시대에 맞게 활용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게 상진 스님의 계획이다. 상진 스님의 공약 중 하나였던 '태고문화사업단(가칭)' 설립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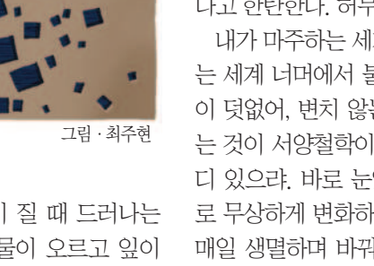
이밖에도 도제 양성, 전법 강화 등 상진 스님이 내놓은 청사진들은 많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차질없는 실천이다. 앞으로 상진 스님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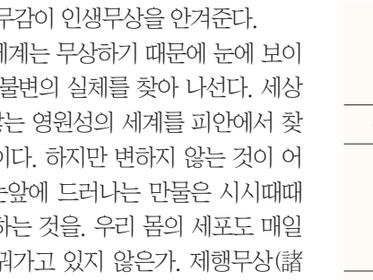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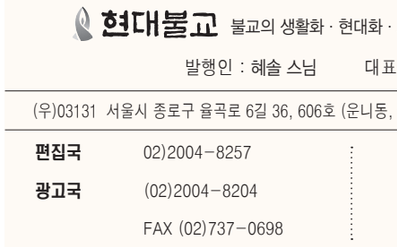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21:30 / 목 14: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본방송 목 09:30
재방송 목 21:30 / 화 15: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본방송 월 09:30
재방송 월 21:30 / 화 23:25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죽음에서 배우는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최광식 교수가 알려주는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본방송 목 12:00
재방송 목 22:30 / 토 08:3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남의집 탐내지 말고
보물 내집안 보물부터 찾아서 닦고
빛내라

대행선사 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